특집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사회운동의 대응

푸틴과 러시아, 1999년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2014년 크림합병까지

부패하고 억압적인 정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

임필수(정책교육실장)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발하자 전쟁의 원 인이 무엇이냐를 두고 국제적으로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은 큰 틀에 서 보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두고 제기된 토론의 반복이 다. 즉 크림반도 합병 당시에도 대체로 지금과 유사한 분석과 입장이 제 기되었다. 첫째,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민족주의적 경향이 합병 사태를 낯았다는 입장 둘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서 분리하려는 서방의 시 도가 오히려 실책이라는 입장 (크림바도 함병 때도 지금처럼 '현심주의' 국제 정치 이론가 미어샤이머가 자주 언급되었다.) 셋째. 우크라이나는 오렌지 혁 명이라는 사례처럼 권위주의 질서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반해.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위주의적 질서가 강화되면 서 양국의 충돌이 빚어졌다는 입장 넷째, 푸틴이 국내 권력기반을 강 화하기 위해 대외정책을 활용했다. 즉 푸틴 정권이 경제적 성과에 기초

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민족주의적 정서 를 활용할 필요가 커졌다는 입장

이러한 분석과 입장 중에서 일부 국내언론은 유독 두 번째, 즉 서 방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고, 나토 가입에 대해서도 완전히 문을 닫지 않아서 러시아의 강경한 대응을 유도하는 실책을 저 질렀다는 입장에 주목하는 듯하다. 그런데 두 번째 입장이야말로. 사 실은 러시아가 가장 바라는 입장일 것이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이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편리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러시아 때문이 아니라, 서방 때문에 합병이나 전쟁이 발생했 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러시아가 나쁘다고 하더 라도 서방도 나쁘다는 도피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 을 받아들인다면, 합병과 전쟁을 개시한 러시아라는 일차적 행위자의 내적인 요인은 무시하게 된다.1

그렇지만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다. 푸틴 정권이 아니었어도 크 림반도 합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까, 합병이나 전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나, 러시아 엘친 정부 때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보 전, 즉 크림반도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양국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 고 양국 의회에서 비준도 했는데, 왜 푸틴 정부는 전쟁을 선택했는가.

크림반도 합병 직전까지 우크리아나의 유럽연합 가입이 추진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 토의 경우를 보면, 2008년 미국 부시 행정부가 나토 가입 전단계로 우크라이나에 '행동계 획 멤버' 자격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유럽의 다른 나토회원국의 반대로 무산된 후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토 가입에 얼마큼 열의를 보이든 간에, 기존 나토회 원국의 반대로 그 실현은 요원한 상태였다. (어떤 국가가 새로운 나토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 즉 실제로는 유럽연합 가입이 추진된 것이지 나토 가 입이 추진된 것은 아닌데, 크림반도 합병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의 나토 가입을 근거로 드는 주장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필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크림반도 합병이 벌어질 당시의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푸틴 정권의 성격이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그정권이 구축되어온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결과적으로 이 글은 푸틴의 대통령 집권 이전까지의 간략한 전사를 포함해서, 푸틴의 대통령 권한대행(1999년) 취임부터 크림반도 합병(2014년)까지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의 변화를 다루게 되었다.

이 글의 결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러시아의 내적인 측면에서 찾는다. 푸틴 집권 초기는 경제개혁과 경제성장, 정치안정, 개방적외교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기대와 어긋나게 푸틴 정권은 점차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른바 '실로비키'(군대, 비밀경찰 출신 인사)라는 푸틴의 측근 그룹이 수직적,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을 구축하고, 거대 국유기업을 사적 소유물로 전략시켰다. 또한, 푸틴과 연고를 지닌 '친구'들이 거대 국유기업과의 수상한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푸틴과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는 장기저성장의 길로 들어섰다.

두 번의 대통령, 한 번의 총리를 한 후, 2012년 푸틴이 다시 대통령에 나서는 일은 국내에서 상당한 저항에 직면했고, 2011~2012년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푸틴 집권 후 초유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벌어졌다. 푸틴은 한편으로는 저항세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면서도,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이데올로기를 개발하고자 했다. 이미 푸틴의 정치 담론을 지배하고 있던 '대러시아 애국주의'가 한층 더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푸틴은 본

인 덕분에 러시아가 소련의 해체 후 극심한 혼란을 이겨내고, 서방과 맞 설 수 있는 강대국으로 부활했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서 러시아 역사의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했는데, 차르 시대 제국의 거대한 팽창뿌만 아니라 스탈린의 대조국전쟁 승리를 위대한 업적으로 내세우며 민족적 추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푸틴 본인이 무명의 총리에서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었던 2차 체체전쟁과 같은 길을 찾기 시작했다. 즉 대러시아 애국주의를 폭 발시킬 현실의 이벤트가 필요했다. 즉 위험과 비용이 아주 크지 않은 '소규모의 승리하는 전쟁'이 필요했다. 게다가 2000년대 초반 조지아, 우 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타과 같은 러시아 이웃국가에서 벌어진 민주화 '색깔혁명'은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국내 저항을 촉발시킬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기도 했다. 크림 합병은 푸틴이 추구하는 바에서 볼 때, 모든 측면에서 최적의 케이스였다. 러시아는 2000년대 중반 이 후로 군비증강과 현대화를 추구했는데, 러시아의 군사력은 우크라이나 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러시아는 서방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했는데, 즉 서방은 개전 초기, 크림에 러시아군이 직접 투입되었는지 여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2014년 크림 합병은 러시아 내에서 '크림 컨센서스'를 창출해. 푸틴 과 여당 통합러시아당은 그 후 두마 선거나 대통령선거, 개허투표에서 승승장구했다. 개헌에 따라 푸틴의 초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고. 푸틴은 2024년에 다섯 번째 임기에 도전하게 된다. 그렇지만 크림 합병과 동시 에 단행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작전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 서 장기화되었고, 그에 따라 전쟁의 경제적 부닦도 가중되었다. 푸틴의 인기를 최고치로 끌어올렸던 '크림 컨센서스'도 시간이 지나며 점차 희

미해졌다. 그렇다면 푸틴은 결단해야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개 입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확대할 것인가, 푸틴은 크림 합병 당시 서 방의 무력한 대응을 분명히 확인했다. 푸틴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을 선택했다.

요약하면, 이 글은 크림 합병,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으로 러시아 의 국내적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즉 위에서 언급한 것처 럼 크림 합병이 발생한 원인으로 (1)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민족주의적 경향 ②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러시아 이웃 국가에서 나타나는 탈권위 주의적 흐름과의 충돌, ③ 공격적 대외정책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 보할 필요성을 꼽은 입장을 종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푸틴 정권 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푸틴 권력의 구축과정을 살펴보겠다.

1. 푸틴은 누구인가?

푸틴 권력을 구성하는 핵심 인사는 푸틴의 성장 과정, 초기 커리어 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즉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KGB(국가보아위원회) 라는 경력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푸틴의 정보기관, 군대, 국유기업에서 중추를 맡고 있다.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 당시 관리들은 푸틴 의 초기 경제부서에서 경제정책을 이끌었다. 세 번째 부류는 그 실상이 비교적 늦게 알려졌는데, 푸틴의 어릴 적 죽마고우이거나 부시장 시절 에 인연을 맺은 사람들로, 국유기업과의 특혜 거래를 통해 억만장자 반 열에 올랐다. 또한, 푸틴의 KGB나 부시장 경험은 그의 국가관, 정치관 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푸틴 정권의 성격,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그의 성장기나 초기 커리어도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성장기 (1952~1974)

블라디미르 푸틴은 1952년 10월 7일.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났다 2 (레닌그라드는 소련 해체 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예정 이름으로 되돌아갔다) 그의 아버지 블라디미르 스피리도노비치 푸틱과 어머니 마리아 이바노 브나 푸티나는 모두 1911년생으로 어린 나이에 1차 세계대전, 러시아혁 명과 내전을 겪었다. 아버지는 1941년, 서른 살의 나이에 재징집되어 작 전 중에 큰 부상을 입기도 했으나. 부부는 872일간 계속된 독일군의 레 닌그라드 봉쇄에서 결국 살아남았다. 어머니 마리아는 질병과 기아로 두 아들을 잃은 후, 41세의 나이에 셋째 푸틴을 낳았다. 부부는 오랜 고 통 끝에 찾아온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푸틴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유도와 레슬링을 혼합한 삼보라는 호신술을 배우며 남보다 앞서겠다는 의지가 강해졌고. 학교 성적도 오 르기 시작했다. 그가 16살이던 1968년, 《방패와 칼》이라는 영화가 인 기를 끌었는데,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소련 비밀첩보요원의 활약상 을 그린 작품이었다. 그는 영화를 보고 첩보요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레닌그라드 KGB 본부에 찾아가 어떻게 하면 KGB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그는 1970년, 경쟁률이 40대 1쯤 되는 국립 레닌그라 드 법대에 진학했다. 그는 법학 공부에 재미를 느꼈는데, 법은 곧 규율 과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졸업하면 검찰청에서 변호사로

2 푸틴의 생애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 기자 스티브 리 마이어스가 쓴 『뉴 차르: 블라드미르 푸틴 평전』(프리뷰, 2016)을 주로 참조했다. 또한 푸틴의 집권 후, 2007년 시점까지의 러시 아 경제와 푸틴의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안데쉬 오슬룬드, 『러시아의 자본주의 혁명: 성공한 시장경제. 실패한 민주주의』, 전략과 문화, 2010을 참조했다. 앞의 책은 2015년에, 뒤의 책은 2007년에 나온 것이므로 그 이후의 시기는 별도의 자료를 참조했다.

일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1974년, 오랫동안 희망했던 바대로 KGB에 채 용되었다. 그는 KGB의 과거 범죄행위는 과거의 일이고, 오히려 국민이 라면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마땅히 KGB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 KGB 경력 (1974-1990)

당시 KGB 의장이던 유리 안드로포프는 경제현대화를 지지하며 KGB에서도 거시경제, 무역에 식견이 있는 요원을 뽑으려 했다. 푸틴은 대학 시절 국제무역과 최혜국대우를 주제로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 이 런 추세를 이미 알고 있던 듯하다 그런데 아드로포프는 경제현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악명 높은 제5총국(반볼셰비키 반소비에트 인사, 종교 인 감시)을 창설해 사하로프. 솔제니친과 같은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타압 을 주도했다.

푸틴의 KGB 경력은 아직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불확실한 대목 이 많다. (제5총국 활동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큰 줄기만 보면, 그 는 1976년 후련교육을 마치고 중위계급장을 달고 국내안보. 방첩을 다 루는 제2총국에 배치되었다가. 6개월 후 해외첩보를 다루는 제1총국으 로 옮겼다. 제1총국은 KGB 내 요직으로, 30만 명이라는 방대한 직원 중 5천 명 미만이 제1총국에 소속되었다. 그는 레닌그라드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외국인의 동태를 감시했다. 그는 1983년 류드밀라 슈크레브네 바와 결혼했다. (제1총국에는 미혼 요원은 해외에 파견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 다) 1984년 9년 차에 소령으로 진급하여 드디어 모스크바의 정예 해외 첩보원 연수학교인 적기연구소에 들어갔다. 꿈에 그리던 해외첩보원이 될 길이 열렸다. 그는 냉전 시대 첩보활동의 요지인 베를린을 원했지만.

1985년, 독일 드레스덴에 배치되었다. KGB 드레스덴 지부는 요원 6~8 명을 유지했다. 그는 번역가라는 위장 신분으로 1990년까지 동독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드레스덴 첩보요원의 주된 업무란 아무 쓸모 없는 엄 청난 양의 보고서를 모스크바에 보내는 일이었는데, 대부분 현지 언론 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푸틴은 부임한 후 주로 과학기술 첩보업 무를 맡았다

인구가 1.700만 명이던 동독에도 직원이 9만 명이 넘는 슈타지(국가 아보부)가 존재했는데. KGB는 슈타지를 마치 하부조직인 것처럼 다뤘 다. 그의 드레스덴 근무 중 벌어진 가장 중요하고, 극적인 사건은 1989 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일 것이다. 동독 공산당(사회주의통일당) 호네커 서 기장은 1989년 초 베를린 장벽이 50년, 100년 끄떡없을 것이라고 말했 으나, 10월, 당 서기장과 국가평의회 의장에서 해임되고, 12월, 당에서 제명되었다. 푸틴은 슈타지에서 일하던 이웃. 친구가 겪게 된 운명도 직 접 목격했다. 그들은 갑자기 일을 잃고 시민들의 노여운 배척을 받았 다. 드레스덴 슈타지 총책 호르스트 뵊은 1990년 2월 자살했다. 동독 KGB는 자료를 파괴하고 정보원 조직을 정리하고 숨기느라 우왕좌왕했 고. 푸틴과 간부요워도 러시아로 귀화했다.

귀환 후 푸틴은 드레스덴 활동에서 보인 충성심에 대해 의심을 받 아 KGB 요직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KGB의 '활성예비역'으로 전환되어, 위장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는 레닌그라드대학 국제관계 담당 부총장직을 받았는데, 이 자리는 학생과 방문객을 감시하기 위해 마련된 KGB 몫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앞길이 불확실한 KGB를 떠나 정 치경력을 시작할 계기를 얻는다

3) 정치경력의 시작: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까지 (1990-1996)

푸틴의 대학 시절, 그에게 상법을 가르쳤던 조교수 아나톨리 소브 차크는 푸틴이 레닌그라드로 돌아올 무렵 개혁파의 저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1989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인민대표 대회(의회) 선거에 출마해 레닌그라드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사하로 프, 옐친과 함께 지역 간 대의원 그룹을 형성하며 명성을 쌓았다. 1990년 5월에는 레닌그라드 시위원회(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유능한 보좌관들을 찾아 나섰는데, 그 자신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KGB에서도 연락책을 찾았다. 푸틴은 KGB 상관의 동의를 받고 소브차크의 대외관계 보좌관직도 맡게 되었다. KGB도 신예 스타정치인 진영에 요원을 심어두는 게 나쁠 일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브차크는 1991년 5월 레닌그라드 시장으로 당선되고, 6월, 푸틴을 시 대외경제관계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소브차크 시장은 1991년 8월 보수파의 쿠데타를 꺾는 데 선봉에 섰다. 당시 KGB 의장 크류츠코프는 쿠데타의 핵심세력에 속했으나, KGB 핵심요원 다수는 의장의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또 일부는 옐친과 반쿠데타 세력을 돕기도 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푸틴은 소연방의 해체, 특히 쿠데타가 전개되는 과정에, 어떤 식의 사소한 역할도 하지 않았으나, 쿠데타 세력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광경을 확인하고서는 KGB에 사직서를 냈다. 실제로 쿠데타 실패후, 크류츠코프는 체포되고, KGB는 여러 다른 조직들로 분할되고, 제5 총국은 폐지되었다.



1992년 9월 28일 레닌그라드를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개칭하는 행사에 참여한 소브차크 시장(오른쪽)과 푸틴(왼쪽).

소브차크가 1996년 총선에서 패배한 후. 특별조사팀이 구성되어 시장실에서 벌어진 부패혐의를 1 년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1997년 6월 그는 검찰에서 조사를 반던 중 심장통증을 호소해 병원으 로 이송되었고, 당시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이던 푸틴이 직접 개입하여 그를 프랑스로 출국시켜버렸 다. 소브차크는 1999년 러시아로 귀국해 푸틴의 대변인이 되어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러다가 2000 년 2월 칼린그라드에서 선거우동을 하던 중 호텔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푸틴은 그의 죽 음에 대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쫓기다 못해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서는 정적에 대한 암살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독살설과 같은 흉흉한 소문이 이어졌다.

레닌그라드시의 경제 상황은 최악이었다.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군수산업이 무기계약 중단으로 극도의 침체상태에 빠졌고. 연방이 해체되어 다른 연방공화국에서 제공되던 식량과 연료도 끊겼다. 푸틴 은 도박산업을 유치하고, 국유기업의 원자재를 팔아 식량과 맞바꾸는 계약을 추진했으나 어느 것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위원회는 석연 치 않은 계약을 두고 부패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했으나, 불성실하고 무 능했다며 푸틱을 해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소브차크 시장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푸틴은 반면, 외국자본을 들여오는 데는 꽤 성과를 거

뒀다. 드레스드너 방크, 도이체 방크, BNP 은행, 크레다리오네 은행 등 외국은행과 캔디 제조업체 츄파춥스, 오티스 엘리베이터 등 제조업체를 유치했다. 또한, 생산공장 특별지구를 조성해 하이네켄, 펩시, 코카콜라, 포드, 리글리를 유치했다. 푸틴은 1994년 제1부시장으로 승진했다.

한편 푸틴은 1995년 5월, 옐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 '우리 집-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부를 조직한다. 옐친 대통령 본인은 무소속이었으나, 그가 임명한 총리 빅토르 체르노미르딘은 '우리 집-러시아'를 창당해 옐친을 보위하고자 했다. 따라서 '우리 집-러시아'는 자율적인 정치조직이라기보다는 행정부-대통령의 수족처럼 행동하는 정당을 일컫는 권력정당(party of power)으로 볼 수 있다. 푸틴은 1995~1997년 '우리 집-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리더인 셈이었다. 그렇지만 1995년 총선에서 '우리 집-러시아'는 비례대표에서 10.13%, 지역구에서 5.64%를 득표해 전체 450석 중 55석을 획득하는 저조한 성과를 냈다.³

소브차크는 예상 밖으로 1996년 시장 재선에 실패했다. 도시에 만 연한 범죄와 혼란에 따른 유권자의 환멸이 반영된 결과였다. 푸틴은 감

3 1990년대 러시아 정당은 크게 네 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좌파 정당으로는 공산당, 농민당, 여성당 등이 분포한다. 특히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소련공산당의 후신으로 전국적 조직과 50만 명을 넘는 당원을 보유했고, 1990년대 러시아 정당 중 조직적, 이념적 차원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중요한 정당으로 보였다. 공산당은 급격한 사유화나 소련 국가체제의 전면적 붕괴에 반대하면서 기존 체제의 부분적 유지를 전제로 점진적 이행을 지지했고,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러시아민족주의적 우파노선을 전면화했다. 두 번째, 우파 자유주의 정당은 사유화나 국가체제 변화의 급속한 이행을 지지했다. 야블로코(러시아통합민주당)가 대표적이다. 세 번째, 민족주의 정당은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의 자유민주당이 대표적인데, 극우주의(소련영토의 부활, 폴란드·편란드·알래스카의 합병)를 표명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친정부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해서 일반적 분류체계로 구분하기 어렵다. 네 번째, 면력정당으로, 옐친 정부는 '러시아의 선택'이나 '우리 집·러시아'를 통해 입법부 장악을 시도했다. (유진숙, 「러시아 민주주의 공고화의 실패」, 《기억과 전망》, 2016.)

	기간	지지도	소속	비고
17	1991. 7. 10 1996. 8. 9.	57.30%	무소속	
27	1996. 8. 9 1999. 12. 31.	53.82%	무소속	임기 종료 전 사퇴

옐치 대통령 임기

자기 일자리와 목표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는 변호사가 될까, 유도 트레 이너로 일해볼까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때 소보차크 시장과 함 께했던 여러 부시장 중 한 명인 알렉세이 쿠드리이 구워의 손길을 내민 다 푸틴은 쿠드리의 추천으로 모스크바로 진출해 파벨 보로딘이 이끄 는 대통령행정실 자산관리부에 소속된다. 쿠드린은 푸틴이 대통령이 된 후 승승장구하여. 2000년부터 11년간 재무부장관을 맡게 된다.

4) 모스크바 진출: 대통령실과 연방보안국 (1996~1999)

모스크바에 막 도착한 푸틴은 아직 아웃사이더에 불과했다. 그는 옛 소련에 소속되었던 독립국과 위성국에 흩어져 있는 해외자산을 되 찾는 업무에 종사했다. 그러다가 쿠드리이 재무차관으로 승진하면서 자 신이 맡던 자산관리부 중앙통제국장을 푸틴에게 물려주었다. 대통령행 정실 부실장을 겸임하는 막강한 자리였고, 특히 정부의 지출남용을 조 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지방정부 고위직이 기업과 짜고 국가재 산을 빼돌리는 일이 아주 흔한 때였다. 푸틴은 기소권은 없었지만, 대 통령실의 힘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방대한 자료를 축적했다. 이 자료 는 지방정부 고위직의 약점을 잡는 셈이었고. 푸틴에게는 곧 권력으로 가는 길을 의미했다. 그는 1997년 5월까지 89개 지방정부 중 1/3을 조 사한 결과, 부정을 저지른 260명의 관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엘친파 내부에서 차기 권력을 향한 내분, 충돌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옐친 대통령 측은 자신을 호위해 줄 '얼굴 없는 젊은 관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옐친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옐친의 패밀리가 많은 것을 결정했다.) 푸틴은 옐친과 개인적 인연이 전혀 없었지만, 1998년 5월 대통령행정실 제1부실장으로 임명되었다. 초고속 승진이었다. 전국89개 지방 정부들과의 관계를 담당하는데, 대통령 포고령이 지방정부수준에서 제대로 실행되는지 살피는 자리였다. 그는 이미 지방정부에서 벌어진 부정을 조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올랐다.

그러다가 1998년 5월 연방보안국(FSB)의 국장으로 전격 임명된다. FSB는 과거 KGB에서 국내 파트를 담당하던 제2총국의 후신이므로, 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셈이었다. 중령이란 계급으로 퇴직한 후, 최고 수장이라는 엄청나게 승진한 지위로 말이다. 이때 푸틴은 조용하고 효과적인 일 처리로 한 번 더 옐친의 강한 신뢰를 받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대통령 측근,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적극적으로 파고들던 스쿠라토프 검찰총장이 끝내 물러나도록 유도하는 데 푸틴의 공이 매우 컸다. 푸틴은 검찰총장의 혼외정사 장면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필두로 갖은 음모와 술수를 동원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가 나오게 했다.

5) 총리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체첸 초토화 작전

1998년 9월 옐친이 총리로 임명한 프리마코프의 문제는 옐친보다 인기가 높았다는 사실이다. 프리마코프는 유력한 차기 대통령 주자로

부상했는데, 옐친은 그를 총리로는 임명했지만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맘 에 두지 않았다. 엘친은 1999년 5월 그를 전격 해임하고 무색무취한 스 테파신을 후임 총리로 임명했다. 그렇지만 해임된 프리마코프와 모스 크바 시장 루즈코프는 선거연합을 결성했고. 특히 루즈코프 측은 대통 령과 패밀리의 부정부패 의혹을 계속 쏟아냈다. 엘치은 그들 중 누군가 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본인의 장래가 매우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때 엘친을 버리고 다른 진영으로 넘어가던 사람들과 달리. 푸틴의 FSB는 루즈코프의 아내가 운영하던 회사를 전격적으로 수사대 상에 올리면서, 옐친을 향한 충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 의회에서는 공산당이 엘친 대통령 탄핵을 매우 강력하 게 추진했다. 공산당이 꼽은 엘친의 죄는 1991년 소연방의 해체. 1993 년 의회를 향한 무력대결. 체체전쟁의 개시. 군대의 약화. 1990년대 경 제위기였다. 5개항의 죄목은 모호했지만, 공산당뿐만 아니라 의원 다수 가 지지했고, 러시아 국민 다수도 크게 호응했다. 대통령 탄핵은 소연 방 해체와 엘친의 개혁이 낳은 결과물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는 성격 을 띠었다. 대통령 탄핵안이 두마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옐친은 놀라운 정치적 모험을 결심했다. 푸틴에게 총리를 제안하면서, 한때는 자기편이었지만 이제는 정적이 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정당을 조직하고 이끌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때 푸틴은 "저는 선거운동 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옐친은 선거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민이 갈망하지만 옐친 자 신에게 부족해 보이는 면모, 곧 신뢰, 권위, '군인다운 태도'를 보이면 된 다고 답했다고 한다. 엘친은 1999년 8월 TV 연설을 통해 푸틴을 총리

로 지명했다면서, 그가 "다양한 정치세력과 힘을 모아 러시아의 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도 대통령 선거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푸틴이 엘친의 공식 후계자로 확고부동하게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니었고, 언론은 대중에게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 푸틴이 그 전임 총리보다 오래 버티리라 기대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푸틴이 총리로 임명될 무렵, 러시아의 경제, 정치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1998년 8월 러시아는 모라토리엄(채무지불 유예)을 선언했다. 러시아 경제가 생산성 저하, 만성적 재정적자로 고통을 겪고 있던 데다가, 1997년 개시된 아시아 금융위기, 그에 따른 원유·비철금속의 수요 감소라는 외부적 충격이 가해졌다. 특히 유가는 석유시추비용 밑으로 떨어졌다. 애당초 만성적 탈세와 자본도피 때문에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마당에 유가하락은 정부재정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 게다가 1994~96년 체첸전쟁에 따른 막대한 전쟁비용이 누적되었다.

한편 (1차) 체첸전쟁은 1996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즉 체첸의 국가적 지위에 관한 논의는 5년간 동결되었다. 그렇지만 1999년 3월 러시아의 체첸특사 슈피군 장군이 납치,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8월에는 샤밀 바사예프가 이끄는 체첸 반군세력이체첸 바로 옆의 다게스탄을 침공해 이슬람국가를 수립하겠다고 선포했다. 바사예프의 군사행동은 상호 경쟁하는 체첸 독립세력 중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보였다.

푸틴은 FSB 국장 때부터 체첸의 독립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새로운 전쟁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총리에 오르자 옐친이 말한 '군인다운 태도'를 선보이려 했다, 그는 옐친 대통령에

게 전 안보부처를 동원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달라 고 요청했다. 푸틴은 두 주간 체첸 반군이 장악한 다게스타 마을을 공 습했고, 기자들을 대통하여 다시 장악한 마을을 깜짝 방문해 공을 세 우 러시아군에 혼장을 달아주는 장면을 연출했다. 늙고 병약한 엘친 대통령과 대비되는 젊고 강한 총리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전달했다.

모스크바에서는 누가 저지른 일인지 불분명한 아파트 폭탄테러가 연이어 터져, 수백 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푸틴은 1999년 9월, 러 시아군과 내무부 소속 병력에 체첸으로 밀고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림 으로써, 2차 체첸전쟁을 개시했다. 그는 1차 체첸전쟁과 달리 체첸 전 체를 장악하고자 했다. 그는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총리로서 정치적



1999년 9월 9월 모스크바 남부, 구리야노바에 위치한 아파트가 폭파되어 94명이 사망하고 164명이 부상했다.

1999년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모스크바, 부이낙스크, 복고돈스크에서 다섯 건의 폭탄 테러가 발생해 모두 295명이 사망했다. 푸틴 총리는 체첸 무장세력의 테러로 단정했다. 그런데 9월 22일 라 쟌의 아파트단지에서 아파트 폭발사건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모양의 장치가 발견되어 제거되는 소 동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 폭탄을 설치한 세 명이 체첸의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FSB 소속이라느게 밝혀졌다. 그러자 FSB 국장 파투르세트는 폭탄이 가짜이고 훈련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폭 탄은 가짜가 아니라 아파트 네 곳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물질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온갖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폭탄테러가 체체에서의 군사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FSB의 음모라는 주장이 연이 어 터져나왔다.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듯, 체첸전쟁에 모든 것을 걸었다. 2차 전쟁의 경우, 1차 전쟁과 달리, 모스크바 테러를 겪은 후, 국민의 지지가 매우 높아졌다. 8월에 총리로 지명될 때 푸틴의 대통령 후보 지지율은 2%에 불과했으나, 10월에는 27%로 올라왔고, 11월에 이르러 40%를 넘어섰다.

엘친의 정치집단은 총선에 대비하여 1999년 10월 통일-러시아당을 창당했다. 통일-러시아당은 루즈코프, 프리마코프 연합인 조국-전러시아당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정당이었다. (그렇지만 양당은 2001년 합당하여 통합-러시아당[약칭 통합당]을 건설한다.) 새 정당은 특별한 정강이나 이념을 내세우지 않고, 애국전선을 표방했다. 통일-러시아의 지지율은 바닥을 맴돌았으나, 푸틴이 통일-러시아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통일-러시아당은 지역 기반이 미미했으나, 푸틴 총리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에서 많은 표를 얻어 제2당으로 약진했다.

한편, 옐친은 또 한 번의 정치적 모험을 결단했다. 총선 전 옐친은 푸틴에게 임기를 마치기 전, 즉 1999년 말에 대통령직을 사임할 의사를 전달했다. (원래는 2000년 6월에 대선이 치러져야 했다.) 그럴 경우, 총리인 푸틴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9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직을 선출해야 했다. 이럴 경우, 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옐친은 12월 31일, 사임 연설을 전국에 방송하며 "새로운 밀레니엄을 새로운 정치인과 함께 맞이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1999년 12월 31일, 푸틴의 첫 번째 포고령의 명칭은 '러시아연방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보장'이었는데, 그들에게 기소면책권을 보장하고 옐친의 재산과 서류에 대한 수색, 압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1999년 총선	1995년 총선	
정당명	대표자	특징	의석	의석	
			(비례대표 지지율)	(비례대표 지지율)	
7.1161		1993년 창설	113석, 1당	157석, 1당	
공산당	주가노프	소련공산당 후신 (보수좌파)	(24.29%)	(22.30%)	
 통일-러시아	쇼이구	1999년 창설	73석, 2당	신당	
등로 디지어	파이그	(권력당)	(23.32%)		
		1998년 창설			
조국-전러시아	루즈코프	1999년 전러시아운동과 합당	68석, 3당	신당	
소국-선디지어	프리마코프	루즈코프, 프리마코프 연합	(13.33%)	[[26	
		(중도좌파)			
		키리엔코, 가이다르, 넴초프	29석, 4당	신당	
우파연합	키리엔코	연합	(8.52%)		
		(진보자유)	(0.0270)		
		1993년 창설	20석, 5당	45석, 4당	
야블로코	야블린스키	2대 두마에서 4당	(5.93%)	(6.89%)	
		(중도자유) 1990년 자유민주당(지리노프			
지리노프스키		스키) 창설	17석, 6당	51석, 3당	
블록	지리노프스키	3대 정파 규합	(5.98%)	(11.18%)	
		(극우-중도)			
우리집-러시아	체르노미르딘	1995년 창설	7석	55석, 2당	
		15555 65	·	(10.13%)	
기타 정당			16석	65석	
무소속			105석	77석	

1999년 러시아 총선 결과

임기 4년의 국가두마는 4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절반은 1인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지역구 선거 로, 나머지 절반은 전국단위의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1999년 총선 결과, 공산당은 1당을 지켰으나, 의석은 44석이나 줄었다.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공산당과 조국-전러시아당이 지역구에서 선전한 반면, 통일-러시아당은 지역구에서 매우 부진했으나, 비례대표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에 2당 으로 약진했다. 러시아 국민의 65%가 체첸전쟁을 찬성하는데, 푸틴 총리에 대한 지지가 통일-러시 아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최병희, 「1999년 총선 이후 러시아의 정치·경제전망」,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0년 2월.) 위 표에서는 과거 공산당과 인적 연계성이나 친화성이 있을 경우에 '좌파'로, 공산당에 반대하던 개혁파와 연계성, 친화성이 있는 경우 '우파'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000년 1월, 통일-러시아당은 공산당과 손을 잡고 두마 상임위원장을 두 당이 나누어 갖기로 합의 했다. 그러면서 조국-전러시아당, 우파연합, 야블로코를 모두 배제했다.

6)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로 (2000)

대선은 3월 26일로 당겨졌다. 푸틴의 국정 의제를 담은 공약집은 게르만 그레프가 설립한 전략발전센터가 작성했다. 그레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소브차크 시장 밑에서 푸틴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고, 1998년 8월 연방 국유자산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푸틴이 대통령이 된후, 2000~7년, 새롭게 설립된 경제개발·무역부 장관을 맡았다. 앞에서 언급한 쿠드린과 그레프는 2000년대 초중반, 푸틴 행정부의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2000년에 들어와서 푸틴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어서 자 푸틴 등장 전, 유력 대선후보였던 조국-러시아당의 루즈코프와 프리마코프는 출마를 포기했다. 나아가 2001년 12월 통일-러시아당과 조국-전러시아당이 합당하여 통합-러시아당을 결성했다. 범옐친파가 푸틴을 지지하며 재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푸틴은 별다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TV토론 출연도 거부했다),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전국에 내보냈다. 밀린 임금을 봄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연금을 인상했다. 특히 체첸전쟁이 길어지면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해, 강력한 보도통제를 하면서 무자비한 공세를 단행했다. 러시아군은 기화폭탄으로 도시 전체를 불태운 후, 2월 초, 그리즈니를 장악했다. 선거직전, 푸틴은 파일럿 복장으로 2인승 전투기를 타고 그로즈니를 방문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푸틴은 텔레비전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후로도 이와 유사한 장면을 종종 연출했다. 혹자는 푸틴의 '스턴트' 연출을 비디오크라시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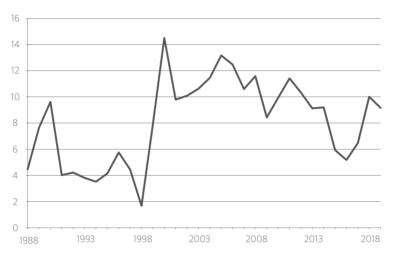
그 결과, 2000년 3월 대선에서 푸틴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어 52.94%를 득표했고, 투표율도 68.6%를 기록했다. 2위는 공산당의 주가 노프로 29.5%를 얻었다. 4년 전 대선에서는 옐친이 35%, 공산당 주가 노프가 32%을 얻어 누구도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서 결선을 치러야 했 다. 푸틴은 단 한 번의 선거도 치르지 않은 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 고, 단 한 번의 선거로 대통령이 되었다.

2. 푸틴 대통령 1기 (2000~2004)

푸틴이 대통령이 될 무렵, 러시아 경제는 급반전을 겪고 있었다. 1999~2000년 세계 유가가 빠르게 상승했고 러시아도 대규모 무역흑자 를 기록했다. 양호한 경제환경을 배경으로 정부는 재정균형을 달성하 고 부채의 조기상환을 달성할 수 있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 도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다. 푸틴은 매우 우호적인 경제적 조건에서 임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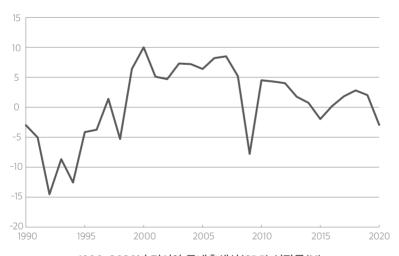
1) 철권통치를 향한 기반 구축

그렇지만, 집권 초기부터 앞으로 펼쳐질 철권통치를 예시하는 일들 이 여이어 발생했다. 먼저 푸틴은 여방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단행했다. 푸틴은 상원격인 연방회의에서 주지사를 쫓아내고, 연방회의의 중요한 권한을 박탈했다. 그 대신에 러시아 전역을 7개 지역으로 분할하고, 각 지역에 대통령이 임명한 전권대표가 선출된 주지사를 관리하게 했다. 대통령은 연방의 법률을 위반한 주지사를 해임할 막강한 권한을 보유



1988~2019년 러시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석유 차익(%)

석유 차익은 석유 수입에서 생산비용을 뺀 차익을 의미한다. 러시아 국내총생산 대비 석유 차익의 최저치는 1998년으로 1.68%이고, 최고치는 2000년으로 14.51%이다. 즉 1998년과 2000년은 극과 극을 이루었다.



1990~2020년 러시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998년 GDP 성장률은 -5,30%였던 반면, 1999년 6,40%, 2000년 10,00%를 기록한다. 그로부터 2008년까지 매년 5%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게 되었다. 푸틴은 "본래 러시아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였다. 이는 우리의 유전암호에 있는 실질적 규정이고, 전통이며, 정신적 유산"이라고 말하며 이런 조치를 정당화했다. 몇 년 후에 이르면 지방정부의 권한은 대부분 사라져서, 러시아가 연방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게 되었다. 푸틴은 당선된 주지사가 그를 거스르려고 할 때 해임하기보다는, 아예 출마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선호했다. 유력한 후보들이 아주 사소한 이유로 줄줄이 출마자격을 박탈당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또 하나의 극적인 사건은 언론, 특히 텔레비전 방송 분야에서 나타 났다. 사태의 전개를 보면, 푸틴은 정교하게 조금씩 잘라내는 '살라미 전술에 능했는데, 텔레비전 채널을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굴복시켜 나갔다. 먼저 엘친과 푸틴에 대해, 특히 체체전쟁에 대해 거침없이 비 판적인 보도를 내던 민간텔레비전. NTV를 소유한 미디어-모스트(지주 회사)의 올리가르히 구신스키가 2000년 6월, 불분명한 이유로 체포되었 다. (올리가르히는 과두제를 뜻하는 그리스어 올리카르키아에서 유래한 말인데. 소련 붕괴 후 거대재벌로 성장한 특권계층을 가리킨다.) 당시 구신스키는 자유 의 대가로 미디어-모스트를 가스프롬(국영에너지회사)에 속한 미디어그룹 에 매각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또한 8월에는 최신예 핵잠수함 쿠르스 크가 침몰하여, 푸틴은 집권 이후 여론이 가장 악화되는 곤란한 상황 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이때, 러시아 최대 올리가르히인 베레조프스키 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국영텔레비전 ORT가 푸틴 을 공격했다. 침몰 당시 외국의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푸틴이 백여 명 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베레조프스키의 개인 비리 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구신스키와 달리 베레조프스키는 대선 때 푸틴 을 지지했다. 그렇지만 그는 친푸틴이라기보다는 친옐친이었다. 푸틴의 입장에서는 그가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위세를 떨려는 인물로 보였을 수 있다.) 구신스키는 2000년 스페인으로, 베레조프스키는 2001년 영국으로 망명을 떠났다. 결국 NTV는 프롬 미디어에 넘어갔고, 베레조프스키가 보유하던 ORT의 지분은 다시 국가로 돌아왔다. 푸틴의 뜻대로 처리된 셈이었다. 이두 사건은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고, 권력에 도전하려는 올리가르히에 본보기를 보이려는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2002년 10월, 모스크바 극장 인질사태를 촬영한 러시아 NTV의 방송 장면

40여 명의 체첸 반군세력이 모스크바 두브로브카 극장에서 912명을 인질로 잡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 투입된 가스 때문에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인질 중 최소한 130명은 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작전을 시작하기 전, 인질의 가스중독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었는데, 인질들은 건물 밖으로 실려 나온 후 90분 이상 방치되었다. 그후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들을 치료할 만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심지어 어떤 가스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러시아 언론은 사망자가 많지 않다는 식으로만 보도했고, 체첸 반군이 어떻게 모스크바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특수부대는 왜 그렇게 대처했는지는 다루지 않았다. 사진은 테러리스트 진압을 위해 투입된 가스 때문에 정신을 잃은 인질을 특수부대가 밖으로 이송하는 장면이다.

한편, 푸틴은 권력의 요직도 직계인사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푸틴 은 대통령선거 후 1년 정도는 옐친이 임명한 인사를 그대로 두었다. 그 러다가 안보부서 최고위급 인사부터 자신의 측근 인사로 교체하기 시 작했다. 신입 국방부장관 세르게이 이바노프, 신입 내무부장관 보리스 그리즐로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자 KGB의 동료였다. 이러한 경 향은 시간이 갈수록 경제부처, 국영기업으로 확대되었다. 푸틴하에서 는 군대, 정보기관, 경찰, 군산복합체 등 무력부서 종사자를 뜻하는 실 로비키. 그중에서도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 고위직에 대거 진출 했다. 푸틴 자신이 KGB, 즉 실로비키 출신인데, 푸틴의 정치에는 비밀 을 엄수하고 조직에 충성하는 실로비키가 제격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푸틴 초기 권력의 삼두마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KGB, 역시 상트 페테르부르크 출신 자유주의자(법률가 경제학자), 옐친 시대의 유산인 올 리가르히라고 볼 수 있었다. (이 중 핵심은 실로비키인 반면, 올리가르히가 특 히 문제적이었는데, 뒤에서 살펴본다.)

2) 푸틴 1기 경제개혁

한편, 푸틴은 집권 초부터 시장경제 지향의 경제정책을 입안, 추진 했다. 이 개혁안은 어떻게 나왔나. 1999년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러 시아 산업에 관한 중요한 보고서를 출판했다. 러시아는 물질적, 인적자 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연간 8%의 성장도 가능하지만, 심각한 장애물이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왜곡된 조세제도 때문에 거대한 보조금이 비 능률적 기업에 제공되고, 부동산 시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시스템 과 법체계가 경제발전에 커다라 걸림돌이다. 등등

대통령	기준연도	정부 관료(%)	고위직(%)
고르바쵸프	1988	5.4	4.8
옐친	1993	11.4	33.3
옐친	1999	22.0	46.4
푸틴	2002	32.3	58.3

소련/러시아의 지배엘리트 중 실로비키 비율의 변화

고르바초프 시기와 비교해 옐친 1기, 2기를 거치며 실로비키가 요직에 대거 진출했다. 사실 푸틴 자 신이 옐친 때 등용된 실로비키였다. [자료출처: 장덕준, 푸틴의 사유화 정책과 재산권 제도화 문제, p. 169.]

앞에서 언급한 자유주의 법률가 게르만 그레프는 자유주의 경제학 자들을 모아 '그레프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조세제도의 개혁, 금융개혁, 규제 완화. 민영화. 사회개혁.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사법개혁과 국 가개혁을 통해 8%의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푸틴은 카시야노프 총리를 비롯해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인사를 정부 요직에 앙히고, 2000~2003년 폭넓은 경제개혁 정책을 실현했다⁴

먼저 에너지 호황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하자,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세금의 수를 줄이고 세율을 낮췄다. 개인소득세는 (평률) 13%, 법인소득 세는 (35%에서 낮추) 24%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금부담을 낮추는 게 탈

오슬룬드에 따르면, 그레프가 총리가 되지 못한 이유는 구 옐친파와 권력분점 때문이었다. 정부 내 가장 강력한 권력은 카시아노프 총리나 볼로신 대통령 행정실장에게 있었는데, 그 들도 대체로 자유주의적이었지만, 엘친 패밀리의 인물로 올리가르히의 이익을 촉진하는 성 향이 있었다. 그레프 경제개발・무역부 장관과 쿠드린 재무부장관, 개혁적 하원의원들이 전 통적인 관료층이나 올리가르히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과 대결하며 개혁정책을 전개했다. 푸틴은 대체로 개혁파에 힘을 더했으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구체 적 언급을 피했다. 볼로신 대통령 행정실장은 2003년 호도르코프스키가 구속되자(이 사건 은 뒤에서 자세히 다룬다) 이에 항의하며 사임했고, 카시야노프 총리는 2004년 전격 해임 되었다

세를 줄이리라 기대했는데, 실제로 징세율이 높아져서 추가적인 감세. 예컨대 부가가치세 감세가 가능해졌다. 둘째, 중소기업의 설립절차를 가소화했다. 이는 관료에게 뇌물을 주어야 할 필요를 상당히 줄였고. 그에 따라 등록된 기업의 수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 셋째, 1993년 헌법 은 개인이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선언했지만, 농업용 지의 매매는 2002년에야 가능해졌다. 거대사업가들이 수만 헥타르의 광대한 농경지를 사들일 수 있게 되었다. 넷째, 파산법을 개정해 기업사 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합자회사 법을 개정해 자산매각을 비롯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결 정은 이사회의 만장일치나 주주총회를 거치게 했다.⁵

5 러시아의 사유화 초기, 소련체제의 국영기업 경영자들이 주요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장 악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외부자들의 소유·경영권 인수 시도에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에 새롭게 주요 국영기업을 인수한 신흥 올리가르히는 이처럼 내부자 출신 이 지배하는 기업에 관심이 많았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기업을 인수하기 어려웠다. (1990년대 중반 신흥 올리가르히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그러자 이들은 목표 기업이 채무를 지고 있던 금융회사의 주식지분을 사들여 스스로 채권자가 된 다음. 소액주주를 동원해 목표기업의 경영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도록 방해공작을 벌였다. 그 후 법원의 강제 결정을 통해 목표기업의 소유·경영권을 장악했다. 그런데 1998년의 파 산법은 이런 절차가 매우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했다. 즉 3개월 이상 연체된 5천 달러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라면 누구라도 채무기업을 대상으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파 산 신청을 당한 기업은 중재 법원이 파견한 임시관리자가 경영을 하도록 했다. 1997년 금 융위기와 1998년 도입된 파산법 절차와 결합해. 신흥 올리가르히가 손쉽게 목표기업을 장 악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2002년 푸틴의 새 파산업은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했다. 즉 파산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기존 경영진의 합의가 있어야 하 며, 파산매니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야 했다. 또한, 소액주주의 경영 권 참여를 어렵게 해서 채무기업의 채무변제가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종합하면 푸틴 의 새 정책은 신흥 올리가르히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내부자 출신 기업인의 지위를 안정화 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또한, 이는 1990년대 이루어진 사유화의 결과를 인정함으로써 소 유관계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책적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장덕준, 「푸틴의 사유화 정책과 재산권의 제도화 문제」、《중소연구》、2007년 가을)

다섯째, 은행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 면허 취득을 위한 최소 자본금을 늘리고, 자기자본비율도 상향조정했다. 여섯째, 연금제도 개 혁은 현행 부과방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적립방식의 민간연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했다. 또한, 새로운 노동법은 서유럽의 노동법을 모델로 했는데, 그 이전과 비교해 해고와 기간제 계약을 용이하게 했다. 일곱 째. 집권 초기 WTO 가입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했는데, 이 역시 푸틴을 자극했다.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수입관세가 평균 12% 정도이고 비교적 개방적이었다. 서구가 주로 문제 로 삼은 것은 사법체계, 특히 세법과 관세법의 불투명성이었는데, 새로 운 세법과 관세법, 민법이 채택되고 지적재산권법도 완전히 새롭게 입 법되었다. 그리하여 2003년까지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한 조건을 거 의 충족했다. 그렇지만 막상 2003년에 이르자. 푸틴은 WTO 가입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타-벨로루시를 묶는 새로운 자유무역지 대 구상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타깃 으로 한 정책이었는데, 2004년 가을에 치러질 우크라이나 대선을 앞두 고 친러시아 후보를 지원한다는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을 담고 있었다. (2004년 우크라이나 대선에 대한 러시아, 푸틴의 개입은 뒤에서 다시 다룬다.) 러 시아의 WTO 가입은 메드베제프가 대통령이던 2011년에야 현실화되었 다

3) 푸틴과 올리가르히

푸틴은 2000년 7월 크렘린궁에서 21명의 올리가르히와 모임을 열었다. 앞에서 언급한 구신스키와 베레조프스키는 초대받지 못했고,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오히려 푸틱과 너무 가까워서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 다. (아브라모비치는 2003년 영국 축구팀 첼시를 인수해 유명해졌다. 그는 옐친 패 밀리와 부를 공유했던 것처럼, 푸틴과 재산을 공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따 라 다녔다.) 이 자리에서 푸틴은 분명히 말했다. "당신들은 정치에 관여하 지 말라 나는 사유화로 초래된 결과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만남 후, 올리가르히는 서로 연합하고 로비를 벌이기 위한 조직. 기업연맹(RSPP)을 구성했다. 2007년 6월 현재. 24명의 기업가를 보면 금 속분야 9명(철강 6명). 금융 5명, 석탄 2명, 첨단기술 2명, 임업, 식품공정, 석유, 가스, 전기, 철도 분야가 각각 한 명이었다. 이 중에 단 네 명이 국 영기업 소속이었다.

2003년 2월에 그 전과 유사한 두 번째 모임이 있었는데, 이때 유코 스 오일을 포함한 석유, 금융재벌을 이끌던 호도르코프스키가 푸틴의 역리을 거드렸다. 국영석유회사 로스네프트의 부패혐의를 제기한 것이 다. 로스네프트가 소규모 석유생산업체 노던 오일을 인수할 때 매입 비 용이 과다지출되었고, 이는 로스네프트 경영진과 정부 관리에 대한 리 베이트로 쓰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푸틴은 예비자금이 필요 했던 것이라며 (즉 사적인 착복은 아니라며) 매우 강하게 화를 내고. 유코 스 역시 과도한 예비자금을 가진 것 아니냐며 (즉 세금을 착복하고 있지 않 나며) 몰아붙였다고 한다. 당시 푸틴은 가스프롬과 로스네프트의 경영 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최측근 인사를 앉히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던 중이었다. 사후적으로 보면, 바로 이날 호도르 코프스키와 유코스 오일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이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면 먼저 1990년대 러시아 석유산업의 사

유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6 2003년 말 브리티시 페트롤륨의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의 석유 확인매장량은 전 세계의 6%(세계 7위)이고, 천연 가스의 경우 26.7%(세계 1위)였다. (석탄 확인매장량도 전 세계의 15.9%에 달했다.) 그만큼 러시아의 석유산업 잠재력이 막강했다는 뜻이다.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국가의 통제력이 느슨해지면서 국영기업 경영 자들이 기업을 콘체른 리스, 지주회사, 합작회사와 같은 형태로 탈바꿈 하는 '자연발생적' 사유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자 석유, 천연가스를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의 법인화(corporatization), 즉 국유기업 을 공공소유 법인기업(주식회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기 시작했 다. 그런데 천연가스 부문은 개발. 채취. 운송이 일관된 과정으로 연결 되어 있고, 가스운송이 대부분 파이프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 가독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석유 산업은 소련 시절에도 산유지별로 분산된 형태로 경영되었고, 석유기업 경영진과 지방엘리트가 유착관계를 형성해 1990년대 초반, 중앙정부에 사유화를 압박했다. 그리하여 러시아 연방정부는 서방의 석유산업을 모델로 하여, 석유산업을 10~12개의 '수직통합 석유기업'(VIOC)으로 재 편할 계획을 세웠다. 수직통합 석유기업은 각각 지주회사의 형태로, 유 전개발, 생산, 정유, 석유제품 생산, 운송까지를 통괄하는 기업을 뜻했 다. 그에 따라 정부는 1991~2년, 루코일, 수르쿠트네프쩨가스, 유코스 등을 수직통합 석유기업으로 법인화했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사유 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옐친은 석유부문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유화

⁶ 장덕준, 「러시아 국가-자본관계의 변화: 석유산업의 경우를 중심으로」, 《슬라브화보》 26권, 2011.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통한 새로운 러시아 건설이라는 명분 을 추구하고자 했다. 또한, 1990년대 초반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석유산업을 국영체제로 유지할 동기 도 크지 않았다.

그런데 법인화된 석유기업이 거대 금융-산업그룹의 주축으로 재편 된 계기는 1995년에 도입되어 1년 반 동안 진행된 '주식담보대출 경매' 방식의 사유화였다. 이는 오넥심방크의 포타닌이 제시한 안으로. 이에 따르면, 6개 상업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핵심 국영기업들의 주 식을 담보로 러시아 정부에 20억 달러를 공여하고, 은행들이 기업을 신 탁받아 경영하며, 1년 후 정부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 이 기업주식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되었다. 엘친 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1995년 말에 경매가 개시되었다. 은행가들은 43 개 우량기업의 사유화를 제안했는데. 최종적으로 12개 기업이 매각되 었다. (석유기업 5개, 석유판매회사 1개, 해운업체 3개, 철강회사 2개, 비철금속회 사 1개.)

경매과정은 수많은 추문을 양산했다. 올리가르히는 대상기업이 전 략기업이라는 명분으로 외국인의 참여를 배제했고, 높은 입찰가를 제 시한 일반기업에서 대해서는 약속한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근 거로 입찰자격을 박탈했다. 정치권과 결탁해 내부자정보를 이용하거나. 마피아와 손잡고 경쟁자나 반대세력을 협박하고 테러를 가하는 행동도 불사했다. 경매 결과, 석유기업의 경우 6대 석유회사 중 3개가 베레조프 스키, 호도르코프스키, 포타닌이라는 금융자본가의 손에 넘어갔다. 옐 친은 어째서 이렇게 파격적인 사유화를 단행했나? 엘친은 1996년 대선 을 앞두고 재선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했고, 올리가르히의 힘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 즉 옐친은 그들의 자금과 미디어 장악력을 활용하고자했다. 또한, 당시 연방정부의 조세수입이 매우 저조한 상태였기 때문에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국유자산 매각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할 유혹도 컸다.

베레조프스키, 호도르코프스키, 포타닌, 이들이 1990년대 중반, 옐친 시대 급부상한 대표적 신흥 올리가르히였다. 하지만 이들의 운명은 푸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갈라졌다. 베레조프스키의 운명은 텔레비전 방송 ORT를 다루며 앞에서 언급했고, 이제 호도르코프스키를 살펴보자.

호도르코프스키(메나텝 그룹)는 거대 올리가르히로 부상한 후, 합법 화와 고급화 전략을 구사했다. 기업구조와 회계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전가격 조작을 중단하고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며, 비영리재단 '오픈 러시아 재단'을 설립하고 광범위한 자선활동도 전개했다. 그렇지만 2003년 푸틴 대통령에게 국영석유회사의 부패 문제를 제기한 직후부터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는 2003년 10월, 죄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연방 검찰에 의해 체포되고, 결국 탈세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코스는 러시아 내에서 세금이 낮은 지역에 등록해서 세금을 줄였는데, 이게 빌미가 되었다. 다른 기업도 다 그렇게 하므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항변했

경매대상	낙찰자
수르구트네프쩨가스 지분 40%	수르구트네프쩨가스 연금기금
루코일 지분 5%	루코일 & 임페리알 은행
시단코 지분 51%	오넥심 은행(블라디미르 포타닌)
유코스 지분 78%	메나텝 은행(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시브네프찌 지분 51%	로고바스 & 에스베에스 아그로(보리스 베레조프스키)

1995년 주식담보대출 경매 방식에 의한 석유기업의 사유화

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2004년 7월 연방법원으로부터 체납세금. 과 징금, 이자분으로 도합 70억 달러가 넘는 세금추징을 당하게 되어 사실 상 파산상태에 빠졌고. 그 액수는 그 후 몇 년간 불어나 28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2005년 9년 형을 선고받았다. 푸틴은 2013년 말에 그를 사 면했다.) 그리고 유코스의 주력 석유생산 기업인 유간스크네프쩨가스의 지분 76.8%는 법원의 강제경매 과정을 통해. 결국 국영회사인 로스네 프찌에 넘어갔다. 따라서 이 과정을 일종의 '강제적 재국유화'로 설명하





호도르코프스키와 아브라모비치의 엇갈린 운명

2004년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500대 부자 중에서 러시아 최고의 부자는 개인 재산 150억 달러의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세계 16위) 당시 유코스 회장이었고, 2위는 106억 달러의 로만 아브라모비 치(세계 38위) 추코트카 주지사였다. 1년이 지난 후 두 사람의 우명은 완전히 엇갈렸다. 호도르코 프스키는 2005년 5월 31일 모스크바 법원에서 9년형을 선고받았다. 2003년 10월부터 583일 동안 복역한 그는 앞으로 7년 반을 더 감옥에 있어야 형기를 채울 수 있다. 유코스가 공중분해 되면서 그의 개인 자산은 1년 만에 22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반면 아브라모비치 주지사는 크렘린으로부터 주지사 연임 통보를 받았다. 주지사는 면책특권이 있는 연방상원의원을 자동으로 겸직하게 돼 있어 부와 권력을 모두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심지어 주지사이면서도 주로 영국에 머물렀다.

기도 한다.

유코스의 몰락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의 분석이 있다. 첫째, 호도르 코프스키는 국영 파이프라인 회사인 트랜스네프트의 독점에 대항해 중 국과 손잡고 민간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국영 가스프롬이 비효율적이라며 가스 분야에서 유코스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2003년부터는 유코스의 자산 대부분을 매각하기위해 엑슨모빌과 협상을 개시했다. 반면 푸틴은 2003년 '러시아 에너지전략 2020'을 발표했는데,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석유, 천연가스 기업은 국가의 대표기업(national champion)으로 국가이익에 기여해야 하고, 정부의 조정과 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푸틴의 개인적 입장을 반영했다. 그렇지만 선두권 석유회사의 호도르코프스키는 푸틴의 정책에 계속 반항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충돌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호도르코프스키는 자신의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 정치권에 광범위한 로비를 펼쳤다. 2003년 10월, 연말의 총선을 앞두고 1억 달러를 동원해 푸틴의 통합러시아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우파세력연합, 야블로코, 공산당에도 자금을 뿌려, 100명의 지지자 그룹을 형성했다는 말이 돌았다. 친푸틴 성향의 모스크바 싱크탱크, '국가전략위원회'는 「올리가르히 쿠데타 전야의 러시아」라는 보고서를 발표해서, 호도르코프스키가 돈으로 정치를 매수하려 하고 있고, 나아가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고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며, 심지어 그 본인이 대통령으로 나서려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즉 호도르코프스키가 에너지정책에 반기를 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직접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푸틴이 에너지 부문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1990년대 중반, 엘친이 주식담보대출 경매를 할 당시와 비교해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 석 유산업의 위상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둘째, 1990년대 사유화 의 결과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푸틴이 올리가르히 를 제압하기 위해 매우 거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오히려 대중이 화영 할 것이라는 정치적 기대가 작용했을 것이다.

셋째. 에너지 부문 국가통제 강화. 특히 국영 석유·가스회사를 푸틴 의 이너서클이 직영하는 시스템은 핵심 지배 엘리트의 경제적 이익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었다. 즉 실로비키에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무 궁무진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2007년 조사에 의하면, 표본 기 업 가운데 이사회에 1명 이상의 정부관리가 파견되어 있는 기업이 29% 에 달했다. 국영기업 이사가 된 공무원은 원칙상 급여를 받을 수 없지 만, 정말 그러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유코스 사 태를 계기로, 푸틴 세력이 초법적인 방식으로 경제적 이권을 차지하는 방식이 마피아와 다를 바 없다는 의미에서, 마피아의 보스, 즉 국가 마 피아라는 시각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즉 국가가 유일한 이권세력은 아 니지만, 여러 이권세력을 통할하는 보스라는 뜻이다. 당연히 푸틴 이후

절대적으로 긍정적	39%
다소간 긍정적	29%
다소간 부정적	13%
절대적 부정적	7%
대답하기 곤란함	13%

1990년대 무상 또는 국가지정 가격으로 사유화한 기업의 국가환수 필요성에 관한 여론(2006년 조사)

[자료출처: 장덕준, 「푸틴의 사유화 정책과 재산권의 제도화 문제」, p. 177.]

로 국영 에너지기업은 승승장구하게 되었다. 석유생산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90%에서 2007년 45%로 하락했다. 훗날, 영국 으로 망명한 구신스키는 러시아에서 투옥된 호도르코프스키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자기과신 때문이었다."

4) 2003년 총선과 2004년 대선

2003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유코스 사건은 2000년 대선 직전의 제2차 체첸전쟁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 유코스 사태는 온갖 탈법, 불법으로 부를 축적한 올리가르히에 대한 정당한 제재라는 대중적 인식이 강했다. 유코스는 통합-러시아당에도 정치자금을 제공했지만, 정부가장악한 언론은 우파연합, 유블로코, 공산당에 정치자금을 낸 행위만 반복해서 보도했다. 올리가르히는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푸틴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오히려푸틴과 사적인 관계를 다지는 데 공을 들였다. 실제로 푸틴은 대선 후, 2005년 3월 기업연맹 회의에 참석해 1990년대 사유화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유화와 관련된 범법행위의 공소시효를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축소했다.

2003년 총선 결과, 푸틴을 지지하는 유사 여당, 통합-러시아가 과 반에 육박하는 223석을 얻는 데 성공했다. 유럽평의회와 유럽안보협력 기구(OSCE)는 이번 선거가 "자유로웠지만 공평한 선거는 아니었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두드러진 부정선거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특히 방송 언론이 편파적이었다. 하원 선거 이후, 2004년 3월의 대통령선거에서 푸틴의 승리는 기정 사실이 되었다. 공산당의 주가노프와 야블로코의 야블린스키는 더 이 상의 굴욕은 싫다는 듯 입후보를 포기했다. 푸틴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 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으나, 동시에 민주적인 선거라는 겉모양을 갖추고 싶었다. 그래서 공산당이 KGB 대령 출신의 하리토노프를 출마 시키도록 설득했다. 최종적으로 6명이 후보로 등록했는데, 무소속의 푸 틴이 71.9%, 공산당의 하리토노프가 13.8%를 얻어, 푸틴이 여유롭게 승리를 거뒀다.

3. 푸틴 2기 (2004~2008)

푸틴 2기에 들어 정부 핵심요직의 인적 구성에 변화가 나타났다. 대선 직전 카시야노프가 전격 해임되고 후임으로 무명의 미하일 프라드코프가 임명되었다. 그는 무색무취하고 수동적인 인물이었다. 대통령실장으로는 볼로신이 물러난 후, (다음 번에 푸틴 총리의 지휘를 받는 대통령이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로 교체했다. 그 역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 자유주의파에 속했던 인물이긴 했다. 하지만, 그런 분류는 이미퇴색했고, 그 역시 독립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관료 그레프와 쿠드란이 장관으로 남아 있기는 했지만, 확실히 실로비키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푸틴 취임 후, 2004년 9월 1일 북오세티야공화국의 소도시 베슬란에서 체첸의 테러집단이 학교에서 인질극을 벌였다. 3일째 총격전이 벌어져 186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인질 334명이 사망하는 대사건이 벌어졌다. 푸틴은 이 비극을 계기로 강력한 개혁을 약속했다.

정당명	대표자	성향	2003년 총선 의석	1999년 총선 의석
			(4대 두마)	(3대 두마)
공산당	주가노프	보수좌파	52석, 2당	113석, 1당
통합-러시아	쇼이구	권력당	223석, 1당	73석, 2당
조국-전러시아	Ę	통합-러시아	68석, 3당	
우파연합	넴초프	진보자유	3석, 6당	29석, 4당
야블로코	야블린스키	중도자유	4석, 5당	20석, 5당
자유민주당	지리노프스키	극우-중도	36석, 4당	17석, 6당
우리집-러시아			7석	
조국-인민-애국연합	글라지예프	극우-보수	37석, 3당	
기타 정당			12석	16석
무소속			67석	105석

2003년 러시아 총선결과

2003년 총선 결과, 푸틴을 지지하는 유사 여당, 통합-러시아가 과반에 육박하는 223석을 얻는 데 성공했다. 통합-러시아는 두마 개원을 앞두고 무소속의 영입에 공을 들여, 개헌을 할 수 있는 300석 을 뛰어넘는 306석을 확보했다. 반면 공산당은 의석이 계속해서 크게 줄었다.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우파연합, 야블로코 역시 크게 의석이 줄었다. 조국-인민-애국연합은 3당이 되었는데, 민 족주의와 사회주의 정서를 자극해 공산당의 지지표를 뺏어 오는 데 전략을 맞추었다.

그런데 며칠 후 푸틴의 발표를 보면, 그 개혁이란 앞으로 주지사를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겠다는 것이었다. 인질극 사태가 벌어진 후에도. 푸틴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권력 때문에 오히려 누구 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았다. 관련 지역의 주지사들도 사태에 대한 개입 을 주저했는데, 푸틴은 사태의 책임을 주지사에게 전가한 셈이었다. 이 와 동시에 두마의 450석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구 선거도 폐지 했다. 2003년 총선 이후 야당이 약화되면서, 무소속이나 민주파는 지 역구를 통해서만 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엿볼 수 있었는데, 이 경로마저 차단하겠다는 뜻이었다. 2003년 총선 이후 개헌도 가능한 의석을 확보 했기 때문에, 푸틴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심지어 옐친마저 언론 인

터뷰에서 푸틴의 조치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적인 권리를 축 소"한다고 비판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푸틴 집권 4년 만에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두마 내에서는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거의 없었다

1) 2004년 우크라이나 대선 개입의 실패

2004년 10월 우크라이나에서는 10년간 대통령을 했던 쿠치마 (1994~2005년 재임)를 이를 새 대통령 선거가 열릴 예정이었다. 1980년대 말. 소련 공산당 내에서 개혁파로 부상했던 쿠치마는 여러 면에서 엘친 과 비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재선에 성공한 후, 2000년 12월 이른바 카세트 스캔들이 터졌다. 야당이던 사회당 쪽에서 쿠치마의 목 소리가 닦긴 500시간 분량의 테이프를 공개했는데, 31세의 저널리스트 곤가제의 납치, 살해에 대통령 본인이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 또한, 쿠치 마 정부가 국제법을 무시하고 후세인 이라크 정부에 스텔스기를 격추 할 수 있는 미사일을 몰래 수출한 사실이나. 이 밖에 다양한 불법 비리 의 정황이 담겼다. 다음 해까지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쿠치마의 인기 는 곤두박질쳤다.

쿠치마는 2002년 빅토르 야누코비치를 총리로 발탁하고, 정치적 후계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의 대선 후보 빅토르 유셴코의 상 승 기세가 매우 강력했고. 쿠치마와 야누코비치는 점차 코너로 몰리고 있었다? 대선을 3개월 앞둔 7월,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로 가

7 빅토르 유센코는 소련시절 국립은행 우크라이나 자사에서 경력을 시작해, 독립 후 1993년 우크라이나 중앙은해 총재를 맡으면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새로운 화폐를 도입 서 쿠치마와 야누코비치를 만났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쿠치마와 야누 코비치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8

쿠치마 대통령은 전임자 크라우추크 대통령(1992~1994년 재임)의 고립적 비동맹노선과 비교할 때, 서방과 러시아, 양자 모두와 적극적 협력관계를 맺는 외교정책을 펼쳤다. 쿠치마 본인은 이를 '전방위 외교'라고불렀다. 1996년 재선에 성공한 러시아의 옐친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을완전히 인정하고,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는 어떤 강압적 수단도 사용하지 않았다. 미국의 클린턴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폐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우크라이나와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이었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했다. 따라서 쿠치마 정부는서방-러시아와 전방위 외교를 펼칠 우호적 분위기에서 출발했다? 집권

했으며, 1997년 러시아 금융위기 때도 통화가치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쿠치마 대통령은 1999년, 유센코를 총리로 발탁했다. 이때 유셴코는 '우크라이나 통합에너지회사'(UESU)의 설립자 중 하나인, 율리야 티모셴코를 에너지담당 부총리로 임명했다. 그녀 역시 부패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유센코는 흑막을 잘 알고 있는 티모셴코야말로부패를 척결할 적임자라고 보았다. 당시 티모셴코는 사업과 거리를 두고 조국당을 창당하여 정치적 야심을 키우던 터라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에 따라 두 사람의 정치적연합이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에 닥친 경제위기가 얼마간 잠잠해지자, 유센코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공산당과, 천연가스·석탄산업의 올리가르히와 연합한 중도파가 힘을 합쳐 의회 불신임투표로 유센코를 해임했다. 총리에서 해임된 후, 유셴코는 2002년 선거연합체인 '우리 우크라이나'의 지도자가 되었고, 유셴코의 신당은 총선에서 정당지지율 23.57%, 450석 중 112석을 차지해 1당으로 부상했다. 티모셴코의 티모셴코당도 정당지지율 7.3%, 22석을 차지해 야당 정파로서 존재감을 살렸다. (허승철, 『우크라이나 현대사 1914~2010』,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 8 크림반도는 18세기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대제가 크림한국으로부터 뺏은 땅이었다. (크림한국(Krym汗國)은 13세기 몽골족이 크림반도에 세운 왕국이다.) 1954년 소련의 후르시초 프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소속으로 바꿨는데, 그때는 누구도 우크라이나가 훗날 크림반도를 보유한 채로 독립하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푸틴이 3자회동을 크림반도에서 연 것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염두에 두고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출발점이었다.
- 9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해, 1994년 1월에 우크라이나-러시아-미국이 3

1기. 쿠치마는 여러 외교적 성과를 냈다.

먼저. 쿠치마는 1996년 4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 유럽 연합 가입이 우크라이나의 목표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지금까지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른다.)

둘째, 1997년 5월 28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총리는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항과 흑해함대 처리 방안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대통령 이 서명하는 조약이 아니라 총리가 서명하는 협정 형식을 취한 이유는 러시아 의회 내에 영향력이 큰 극우 세력이 비준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 기 때문이다. 흑해함대는 일단 양분하고, 일부를 러시아가 다시 사들여 결국 82 대 18의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세바스토폴항은 2017년까지 20 년간 러시아가 임차하기로 하되, 러시아의 가스공급 채무와 상계되어 실제적인 경화 지불은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5월 31일에 양국은 우호 협력조약도 체결했는데, 양국의 영토적 통합성을 인정한다는 게 핵심으 로, 크림반도의 영토 귀속 문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이 우호협력조약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각각 의회에서 비준되었다.

셋째, 2개월 후, 1997년 7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는 우크라이나와 나토 문제에 관해서도 합의를 이루었다. 러시아는 우 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관한 어떤 구상도 반대하며. 우크라이나 정부 와 나토 회원국도 만장일치로 이런 입장을 견지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그 대신 '특수한 동반자관계'(distinctive partenership)에 관한 나토-우크라

자 협정을 체결하고 또 12월에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과 러시아 미국 영국이 그 유명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에 서명했다. 그 결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2 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1996년 6월 1일 전략핵무기가 러시아에 이전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가 실현되었고, 2000년 초에는 130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 해체되었다.

이나 헌장이 채택되고, 이에 따라 양자가 안보문제에 관한 공동관심사를 협의할 포럼으로 나토-우크라이나 위원회(NUC)가 구성되었다.

종합해보면, 쿠치마 1기는 미국·서방과 러시아(클린턴-옐친) 사이의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배경으로 미국·서방과 러시아, 각각과 여러 외교 적 성과를 낸 시기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러시아와 영토 문제를 최종 적으로 매듭지은 것은 가장 큰 성과였다.

그렇지만 쿠치마 2기, 특히 카세트 스캔들이 터진 후, 쿠치마 정부의 외교정책은 좌충우돌을 겪는다. 언론인과 정적을 암살했다는 매우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과 만나줄 서방 지도자는 거의 없었다. 게다가 이라크 무기판매가 폭로된 후, 미국 의회 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역제재 문제마저 논의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궁지에 몰릴수록 쿠치마 대통령은 무리한 행동을 이어갔다. 2002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도 받지 않았지만 참가하여 나토에 가입할 의사를 밝혔다. 또한, 2003년에는 이라크에 파병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쿠치마 대통령은 서방의 지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다.

바로 이때 푸틴이 손을 내밀었다. 쿠치마는 불과 한 달 전에도 유럽 연합과 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푸틴과의 회담 직후 그 입 장을 정반대로 뒤집어엎었다. 유럽국들과는 우호적인 관계만 유지하겠 다고 밝혔다. 그 대신 푸틴이 제안한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 루스, 카자흐스탄 4개국이 참여하는 공동경제구역(CES)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나아가 푸틴은 우크라이나 선거에 은밀하면서도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심했다. 러시아 기업인들은 푸틴의 압력에 따라 야누코비치의

선거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야누코비치가 쓴 6억 달러의 선거비용 중 3억 달러를 러시아 기업인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6억 달러는 당시 우크라이나 GDP의 1%에 해당했다. 또한, 대통령 행정실장 메드베데프가 우 크라이나 선거 지원 책임자가 되고, 8월에는 그의 최측근 보좌관들이수도 키이우에 비밀리에 선거 지원 사무실을 열었다. 그들은 러시아 선거와 똑같은 수법을 활용했다. 관영TV는 야누코비치를 선전하고, 야당유센코 후보를 서방 첩자라고 악랄하게 공격했다.

선거운동이 점점 더 뜨거워질 때,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다. 9월 초, 유셴코가 독극물에 중독된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쿠치마 세력이 자신 을 암살하려 했다고 보았다. 그는 점점 더 승기를 잡아갔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푸틴도 선거 3일 전, 우크라이나 해방기념일 참석을 명분으로 키이우를 방문했다. 푸틴은 TV에 출현해 시청자의 전화질문을 받는다는 형식으로 야누코비치가 총리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거듭 칭찬했다. 다음 날에는 쿠치마, 야누코비치와 나란히 기념 퍼레이드에 참석했다.

10월 31일 투표 결과 야누코비치는 39.2%를, 유셴코는 39.87%를 얻어서, 3주 후에 2차 결선투표가 벌어지게 되었다. 푸틴은 다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야누코비치에게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야누코비치를 압박했다. 선관위 직원들은 유령 유권자 명부를 만들었고, 지방투표자들이 버스를 타고 키이우에 와서 다시 투표를 하는 장면이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야누코비치의 지지자가 많은 동부에서는 1차에 비해 2차에서 투표율이 갑자기 20% 항상증해 96.7%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유럽의 NGO가 실시한 출구조사는 유셴코가 11% 이승리한 것으로 나왔지만, 선관위는 야누코비치가 3% 항승리했다

고 발표했다.

그 결과, '오렌지 혁명'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약 1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쿠치마의 회상에 따르면, "푸틴은 강경한 사람이지만 대 단히 약아서 자기 입으로 시위 현장에 탱크를 투입하라고 말을 직접 하 지 않았다. 대신 그렇게 해보라는 식으로 힌트를 계속 던졌다." 결국 우 크라이나 대법원은 투표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선거 결과, 유셴코는 52%, 야누코비치는 44%를 얻었다. 푸 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치욕스럽게 패했고, 그 원한을 깊이 새겼다. 이는 먼저 러시아 국내 정책으로 나타났다.

2) 우크라이나에서 실패 이후, 권위주의를 향해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 전후에도 러시아 주변국에서 '색깔 혁명'이 벌어졌다. 2003년 11월에는 조지아(그루지야)에서 '장미 혁명'이 벌어져 셰바르드나제 대통령이 하야했다. 2005년 2월에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레몬 혁명'(또는 '튤립 혁명')으로 아카예프 대통령이 물러났다.

어떤 연구자는 세 나라에서 색깔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조건으로, ① 반(半)권위주의적 체제, ② 인기 없는 구체제 정치인, ③ 강하고잘 조직된 야당, ④ 조작된 선거결과에 대한 빠른 인지능력, ⑤ 투표조작을 시민에게 알리는 독립 미디어, ⑥ 선거조작에 대항하는 시위자를 조직할 수 있는 야당의 능력, ⑦ 정보기관, 군대, 경찰 내부에서 정치적태도의 분기를 꼽았다.10

푸틴은 이런 요소들이 러시아 내부에서도 위협이 된다고 인식한

10 안데쉬 오슬룬드, 위의 책, p. 458.

듯. 이러한 위험요인을 차례로 분쇄해 나가기 시작했다. 먼저 외국 스파이를 찾아낸다는 명분으로 수색을 강화하면서 러시아 내에서 활동하는 NGO 단체를 탄압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NGO 활동에 대한 보복이기도 했다. 또한, 2005년 1월 친정부 청년운동단체인 나시(Nashi)를 결성해, 이를 앞세워 반정부단체에 제약을 가했다.

2005년 4월, 푸틴은 두마, 연방위원회 합동 연설에서 "국내외적으로 러시아에 도전하는 세력"에 맞서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자고 호소했다. 또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 법치와 같은 가치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소연방의 붕괴야말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겪은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과 동포가 러시아 영토 바깥으로 내몰렸습니다", "해체의 바람은 전염병처럼 러시아 영토 안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모든 면에서 불길했다. 첫째, 러시아가 더는 서구 방식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와 법치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셈이기 때문이다. 둘째, '러시아의 영토 밖으로 내몰린 동포'라는 표현은과거 소련의 영토에 속했던 독립국을 향한 팽창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외 도전세력'이라는 표현도 매우 불길했는데, '외부의 적과 그들이 국내에 침투시킨 스파이, 파괴자'라는 스탈린 시대의 도식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푸틴은 반(半)권위주의를 2기에들어서 완전한 권위주의로 바꾸겠다고 단호히 결심한 듯했다.

이때부터 푸틴은 철학자이자 종교지도자였던 이반 일린(1883~1954) 이라는 이름을 자주 꺼내곤 했다. 러시아 밖의 정보기관과 언론은 러 시아 안팎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반 일린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하 기 시작했다. 그는 러시아혁명 당시 백군 장군, 표트르 브란겔이 세운 '러시아 전군(全軍)연합'의 이데올로그였다. 그는 한편으로 러시아 정교 와 애국주의, 법치와 사유재산제를 국가의 토대로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혁명 후 내전기, 백군 영웅을 찬미하는 글을 남겼다. 푸 틴은 러시아 정교와 애국주의, 영웅주의에서 서방의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적 원천을 찾고자 했다.

3) 우크라이나에서 실패 이후, 대외정책의 전환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은 대외관계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전환점이 되었다. 푸틴은 집권 초기에는 서방과 긴밀한 협력을 원했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력이 급격하게 커지고 푸틴 자신의 권력이 공고해지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했다.

집권 초 푸틴의 대외정책을 회고해 보면, 푸틴은 러시아 내부의 체 첸이나 북코카서스의 이슬람 독립세력과 대결하는 데에도 힘이 부쳤 고, 서방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원했다. (2000년 3월 대선에서 그는 러시아가 언젠가는 나토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6월 클린턴과 정상회담에 서는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옵션을 한 번 고려해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푸틴의 회상에 따르면, 클린턴은 "안 될 게 뭐 있겠냐"고 답했지만, 허를 찔린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2001년 그는 소련 시절 운영했던 해외 군사기지도 폐쇄했는데, 쿠바의 감청기지, 베트남의 해군기지도 포함되었다.

2차 체첸전쟁이 잔혹하다는 비판에 직면했을 때, 푸틴은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오히려 러시아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즉 이슬람 테러리즘의 위험성을 부각해 체첸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



나시 소속 회원들의 집회 장면

2007년 12월 3일, 친푸틴 성향의 첫년단체 나시(Nashi) 소속 회원 5천여 명이 모스크바 붉은광장 에서 모여 통합러시아당의 압승을 축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나시의 정식 명칭은 '청년 민주주의 반파시스트 운동, 우리들!'이다. 17세에서 25세까지 연령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데, 2007년 말 회 원이 12만 명으로 성장했다. 2012년 '스마트 러시아'라는 정당을 창당하며 활동태를 전환했다.

았다. 푸틴은 9·11 테러 직후, 러시아의 예정된 군사훈련을 취소해 버리 고. 콘돌리자 라이스 군가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도울 일 이 더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10월 미국이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소탕 한다는 명분으로 아프가을 침공했을 때, 러시아는 자기가 수집한 정보 를 제공했고. 우즈베키스타과 키르기스스타에 미군 군수기지가 들어서 는 것도 묵인했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옛 소련 영토에 미군이 들어왔다.

10월에는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 담에서 부시와 따로 만나서 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 조약(ABM)을 개정 해 미국이 미사일방어망(MD) 시스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 안하기도 했다. 이때 푸틴은 ABM을 개정하되,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미국의 MD를 무력화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시간을 벌고자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지만, 3주 뒤, 부시는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 더 시간을 끌지 않고, 러시아가 반대하더라도 미국은 12월 중순 ABM에서 탈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다.

푸틴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발트3국)의 나토 가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낮췄고, 2002년 5월에는 나토-러시아 평의회(NRC)를 구성하기로 했다. 나토-러시아 평의회는 '공동결정과 행동'을 합의했는데 특히, △ 테러리즘에 대한 공동 대처, △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협력, △ 군사협력(합동군사훈련 포함)이 핵심 초점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2002년 11월 나토 정상회담은 불가리아, 슬로베 니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7개국의 나토 가 입을 승인했다. (7개국의 공식 가입은 2004년 6월에 이뤄졌다.) 이때 러시아도 이를 사실상 승인했다. 푸틴이 나토 정상회담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 으나, 이바노프 외무장관이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들과 회의를 열었다. 그는 나토의 확장이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나토 측 확인에 환 영을 표하고, 평화유지와 대(對) 테러활동에서 나토와 협력한다는 방침 을 재확인했다. (이때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이라크에 유엔 결의 준수를 촉구하 는 강력한 성명을 냈으나,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경우 이에 동참하겠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다. 이는 유엔안보리 논의 때 미국의 자동적인 이라크 공격을 반대했던 유럽 측 입장에 따른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러시아로 날아가 푸틴 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때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동안 나토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러-나토 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즉 7개국의 나토 가입에 공식적, 공

개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는 우회적 표현이었다. 이날 푸틴과 부시의 공동성명은 나토 문제가 아니라. 이라크의 유엔결의안 준수를 촉구하 는 간단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별도로 미국이 단독으로 이 라크 전쟁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말도 덧 붙였다. 2002년 부시는 7개국의 나토 가입이라는 성과는 얻었으나, 나토와 러시아 의 이라크 전쟁 지지라는 그에게는 더 중요한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푸팅과 부시 모두, 개인적으로도 친분을 다지기 위해 서로 큰 노 력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2004년 러시아의 노골적인 우크라이나 대선 개입 이후, 푸틴과 부시의 관계에 긴장이 돌기 시작했다. 부시 정부는 2005년 1월, 두 번째 임기에 돌입했는데, 테러와의 전쟁에 이어, '민주주 의의 신장'을 외교목표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푸틴과 정상회담 직 전 기자회견에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시민혁명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해 푸틴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 후, 2005년 1 월에 치러질 의회, 주지사 선거를 언급하면서, 1989년 체코의 벨벳혁명 후 민주주 의 발전의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이라며 자찬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유코스의 호도르코프스키를 체포한 사건이나, 러시아의 여러 언론타압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는 처시'라고 우 려를 표했고, 푸틴은 미국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을 언급하며 부시에게 조롱과 야유를 던졌다.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두 정상 간 매우 불편한 분위기가 그대로 드 러났다. 러시아 기자는 (마치 미리 준비한 듯) 푸틴에게 왜 미국의 인권침 해 사례를 지적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그 이후로도 양 정상은 자주 만났고, 여전히 상대방을 잘 예우한다는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했다. 그 러나 푸틴의 태도는 확실히 첫 번째 임기 때와는 달라졌다.

한편 2005년 말 러시아 가스프롬은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천연가 스 가격을 1천 입방미터 당 50달러에서 23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 다. 푸틴은 2004년 우크라이나 대선을 앞두고 당시 총리 야누코비치의 당선을 돕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그 렃지만 친서방 성향의 유셰코가 당선되자 입장을 바꿔버렸다. 유셰코 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2005년 1월 러시아로 가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푸틴과 러시아인을 아십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쿠치마 정부에 이어. 유 럽연합과 나토 가입을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추진했다. 마땅한 다 른 압력수단이 없던 러시아는 가스공급을 무기로 삼았다. 푸틴은 유셴 코의 친서방정책을 두고 "왜 그런 정책을 우리 돈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 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양국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2006년 1월 가 스프롬은 전격적으로 가스공급을 중단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는 자 국을 통해 유럽 각국으로 가는 가스를 막고, 자신이 필요한 양을 뽑아 서 쓰기 시작했다. (유럽으로 수출되는 가스프롬의 천연가스 중 80%가 우크라 이나를 통과했다.) 그러자 한겨울에 어려움을 겪게 된 여러 유럽국가가 강 력히 반발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그래서 가스공급 중단은 푸틴이 양보 를 했는데. 유럽에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결정 적으로 훼손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적 협상 결과, 가스 프롬이 지분 절반을 지닌 '로스우크로 에네르고'라는 중개회사가 끼어 들게 되었고, 따라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가스공급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중개회사는 2004년 얄타에서 푸틴과 쿠치

1 당시 러시아 가스프롬과 우크라이나 나프토가스의 공동기자회견에 따르면 "러시아는 에

마가 만날 때 합의하여 세운 곳인데. 가스프롬가 지닌 지분 이외의 지 분을 누가 갖고 있는지가 비밀이었다. 비밀 지분의 수익이 누구에게 가 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놀랍게도 유셴코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과 관련 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2007년 2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 푸틴은 소련-러시 아의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이때 푸틴의 연설 은 대외정책의 전화을 분명히 선언하는 자리였다. 푸틴은 서두에 외교 적 언사를 모두 생략하겠으니 자신의 말에 화를 내지 말라고 주문한 후, 이례적으로 미국을 직접 거명해 가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세계 가 민주주의적이지 못하고 "하나의 주인, 하나의 주권, 단극체제"를 이 루고 있다고 하면서, 이라크 전쟁을 들어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무력이 절제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토의 동진은 나토의 현 대화와 무관하다"며 "누구에게 대항하기 위해 확장하는가 물을 권리가 러시아에게 있다"고 하여, 지금까지와는 달리 나토 가입국의 확대에 강 력히 제동을 걸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 그리고 "미국이 OSCE의 성격 을 자국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주장했는데. OSCE가 구소련지역에 국제 선거감시단을 파견하는 데 불만을 표한 셈이었다. 또 '정략핵무기감축조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베개 속에 여분의 타두 를 감추었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만일 미국이 본토를 방

너지 무역회사인 로스우크레네르고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1000㎡당 230달러에 가스를 공 급하며, 로스우크는 이를 우크라이나에 1000㎡당 95달러에 판매하는 데 합의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로스우크가 러시아산 가스에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로부터 사들 인 저가의 가스를 혼합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 나는 구매하는 가스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리는 대신 자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사용료 를 47% 인상하기로 했다.

어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가 개발된다면 이는 냉전기의 상호확증파괴 (MAD), 즉 공멸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 경고하면서 넌지시 러시아의 새 탄도미사일 'Topol-M'이 어느 정도는 이에 대한 응대라고도 밝혔다.¹²

이 자리에 푸틴을 초청한 사람은 바로 독일의 메르켈 총리였는데, 푸틴의 예상 밖 연설은 그녀를 포함해 참가자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 푸틴은 집권 이후, 능력 있는 외교가이자 중재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했 는데, 참석자들은 푸틴의 연설이 냉전의 언어라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다음 날 연설에서 "냉전은 한 번으로 족 하다"며 우회적으로 푸틴의 연설에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만 푸틴의 연설은, '테러와의 전쟁' 이후 부시 행정부의 일방 주의 정책에 질린 세계 여론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독일의 중도좌파 성향의 신문 《쥐드도이체 차이퉁》도 푸틴의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며, "냉전의 승자가 패자를 가부장적인 방식으로 다룬 것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고 적었다. 푸틴으로서는 직전 해에 발생한 리트비넨코 독살 사건(바로 뒤에서 다룬다)이나 국내에서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으나, 이 연설을 통해 분위기를 얼마간 반전시킬 수 있었다

그렇지만 푸틴은 뮌헨 연설 이후 더욱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펼쳤다. 2007년 5월 러시아는 에스토니아 정부와 상업은행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2008년 이후 러시아는 군비지출을 늘리고 군대, 하드웨어와 전술을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정보, 반란 대처, 역정보(허위정보), 사이버전을 강조했다.

12 정은숙, 「제43차 '뮌헨안보정책회의'와 미러관계」, 《코나스넷》, 2007년 3월 11일.

뮌헨 연설 다음 해, 2008년 5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은 또다시 대결의 장이 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2008년 1월, 갑작스럽게도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캠페인을 개시했다. 부시는 정상회담 전 4월에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그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계획은 부시 행정부 임기 안에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 준회원에 해당하는 '행동계획 멤버'(MAP)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 전까지 다른 나토 회원국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했다.

푸틴도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을 받았다. 푸틴은 비공개회의에서 극히 전투적인 발언을 했는데, 주권국으로 우크라이나의 지위와 그 영토보전(territorial integrity)을 부정했다. "만약 나토 문제가 더해진다면, 우크라이나는 주권국으로서 생존의 벼랑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1954년 크림이 우크라이나에 귀속된 것도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영토보전' 이란 국제법의 원리 중 하나로 주권국이 자신의 국경과 모든 영토를 방어할 권리를 부여하며, 무력으로 영토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침략행위로 간주한다.)

회담 결과, 정상회담 성명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환영한다"고 표현했으나, 독일과 프랑스가 반대하여 '행동계획 멤버' 자격 부여는 무산되었다. 즉 부시 행정부의 계획이 좌절되었다. 나토 정상회담에서 푸틴의 발언은 거의 전쟁 선언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정상회담 후 부시는 소치의 푸틴 별장을 찾았다. 푸틴은 부시가 자신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했을 수 있다.

임기 말, 라이스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방문해 '전략 적 동반자 헌장'에 서명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훈련과 장비를 강화해 향후 나토 가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렇지 만,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훨씬 더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우 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의 모멘텀을 잃게 되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는 행동계획 멤버 자격도 얻지 못한 상태였다. 러시 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나토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우크라이나 기자가 나토 사무총장에게 "만약 [2008년] 부쿠레슈티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 입] 초대를 받았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종합해보면, 푸틴은 2004년 우크라이나 대선에 매우 큰 공을 들여 노골적으로 개입했음에도 '오렌지 혁명'을 거치며 결국 실패했다. 이때 푸틴은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러시아 동포가 방치되어 있는' 구소련 영토를 분명한 영향권에 두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05년 우크라이나 가스공급 사건은 겉으로 보면 푸틴이 양보한 듯했지만, 사실 가스공급의 무기화가 성공을 거둔 사례로 볼 수 있다. 2007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부시 행정부를 비난하는 충격 발언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2008년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4) 이어지는 추문: 리트비넨코 독살

푸틴이 집권한 후, 그 전모가 비교적 분명히 드러난 올리가르히의 구속, 망명, 투옥뿐만 아니라 FSB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산 의심스러 운 사건이나 정치적 경쟁자, 언론인의 '의문사'가 이어졌다.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들면, 자유러시아당의 세르게이 유셴코프 의원은 2003년 4월 모스크바 교외 자택 근처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 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를 비판하고, 체첸전쟁에 대해서 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인물이었다. 또한, 런던으로 망명한 베레조 프스키와도 가까운 사이였다.

또한, 2006년 10월,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의 기자, 안나 폴리코 프스카야가 총격으로 사망했다. 그녀는 체첸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고발하는 기사를 썼는데, 그녀는 수년간 협박과 폭력을 당하면 서도 멈추지 않았다. 저널리스트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살해를 당하거나 의심쩍은 죽음을 맞이한 러시아 저널리스트가 수십여명에 이른다. 모든 살인사건이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정부가 비판적 저널리즘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인에게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도록 부추기는 효과를 발휘한다.

2006년 11월에는 러시아 밖, 런던에서 암살 사건이 발생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전 KGB, FSB 정보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는 FSB 요원 2명과 차를 마시고 돌아온 뒤 쓰러져 약 3주 후 숨졌다. 그의 체내에선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 '폴로늄-210'이 다량 발견됐다. (그래서 '방사능 홍차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리트비넨코는 푸틴 대통령의 정적을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고, 1999년 300명의 희생자를 낸 러시아아파트 폭발 테러가 체첸 반군 소행이 아닌 FSB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여 주목을 끌었다. 그의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2014년 영국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2016년 6월 조사위는 "리트비넨코의 독살은 러시아 정부 소행이며, 푸틴 대통령이 독살 계획을 최종 승인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현재진 행형이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꼽아보면, 영국으로 망명했던 보

리스 베레조프스키가 2013년 3월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018년 3월에는 베레조프스키의 친구이자, 그의 타살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니콜라이 그루쉬코프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2015년 2월에는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가 모스크바에서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넴초프는 크림반도의 합병과 전쟁을 비판하는 소수의 정치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크림반도가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이고 러시아의 합병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체첸인 다섯 명이 1500만 루블(20만 달러)을 받고 청부살인을 저지른 죄로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넴초프의 딸 잔나 넴초바는 푸틴이 직접 아버지의 암살을 지시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2017년 2월에는 넴초프의 보좌관이고, 호도르코프스키가 설립한 시민단체 '열린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가 미확인 물질에 의해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2017년 3월에는 우크라이나로 망명한러시아 전 두마의원, 데니스 보로넨코프가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그역시 크림반도 합병에 반대한 인물이었다.

2018년 3월에는 전직 러시아군 정보총국(GRU) 요원이자 영국 정보 국에 협조했던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 었다. 그들은 러시아에서 개발된 군사용 신경가스 노비촉에 중독되었 다. 범인은 러시아 GRU 소속 요원이었다.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는 보 복 조치로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했는데, 이들은 영국에 있는 러시 아 스파이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2020년 8월에는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노비촉과 유사한 신경가스에 중독되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발니는 노비촉 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는 인물은 FSB 국장, 해외정보국 국장, GRU 국 장 셋인데, 이들도 푸틴의 직접적 승인 없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므로, 자신에 대한 공격의 배후에 푸틴이 있다고 단언했다. 나발니는 독일에서 치료를 마친 후, 2021년 1월 러시아로 돌아왔으나, 집행유에 의무를 어기고 해외로 출국한 죄로 출입국 관리소에서 구금되었다. 그는 2022년 3월 사기와 법정모독죄로 9년 징역을 선고받았고, 추가 혐의가 덧붙여져 수형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5) 사이비 정권교체

2007년 7월, 푸틴은 과테말라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 직접 참석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 나섰다. 2차 결선투표에서 러시아 소치가 한국 평창을 4표 차이로 이기는 데 성공했다. 푸틴의인기는 또다시 치솟았고, 개선장군처럼 모스크바로 귀환했다.

2007년 12월에는 (5대) 두마 선거가, 2008년 3월에는 (5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개헌하지 않는 한, 푸틴이 다시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했다. 푸틴은 권위주의 통치를 행했지만, 민주주의라는 겉모습을 원했다. 푸틴은 개헌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권력이 재편될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국방장관 세르게이 이바노프나 대통령 행정실장 드미트리메드베데프가 유력해 보였으나, 푸틴은 제3의 인물이 후계자가 될 수있다는 암시를 내놓기도 했다. 푸틴의 심복 간 차기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벌어지며, 이른바 '측근 전쟁'이 벌어졌다.

12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금까지 무소속을 지켰던 푸틴이 통합 러시아당의 정당 명부 후보자 명단의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가 대



보리스 넴초프가 피살된 현장에 그를 추모하기 위해 켜진 촛불

템초프는 러시아의 경제난과 돈바스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 2015년 3월 1일, 반정부집회 '베스나'(계절 봄을 뜻한다)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루 전 총격으로 사망했다. 템초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푸틴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살해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바 있었다. 살해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모두 다섯 명으로 모두 체첸 출신이었고, 그들은 돈을 받고 살해를 했다고 밝혔다. 템초프의 가족들은 푸틴 대통령에 충성하는 체첸 자치공화국 수장 람잔 카디로프가 암살 지시 배후라고 주 장했다.

통령에서 물러나더라도 당 대표직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12월 총선에서는 통합러시아당이 독주했다. 새로운 선거법, 즉 의원 전원을 전국단위 정당명부제로 뽑는 선거에서 64%를 득표하여 단독으로 개헌선을 넘는 315석을 획득했다. 무소속이나 민주파는 지역구를 통해서만 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엿볼 수 있었는데, 우려했던 것처럼 단한 석도 얻지 못했다. 권력당인 통합-러시아당을 정점으로, 1990년대에도 존재했던 보수적 민족주의적 성향의 공산당, 자유민주당과 푸틴 치

하에서 등장한 관제 아당. 모두 4개 정당이 의석을 독차지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2003년 두마 선거에서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서 400여 명 의 선거모니터팀이 파견되었고, 선거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바 있었다. 2007년에는 러시아가 팀의 규모를 70명으로 제한하자 OSCE가 아예 불 참을 결정했다.

12월 10일, 의회 4당 대표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푸틴을 만나는 장 면이 TV로 방영되었다. 이 자리에서 통합러시아당의 그리즐로프는 다 른 당 대표들과 함께 차기 대통령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며, 메드베데프 를 추천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하는 메드베데프도 사전에 상의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뻔히 연출된 장면이었으나. 푸틴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정당 대표들이 각계각 층의 의견을 수렴해 후계자를 선택했다는 이미지를 전달하길 원했다. 2008년 대통령선거 결과 메드베데프가 71.2%, 공산당의 주가노프가 18.0%. 자유민주당의 지리노프스키가 9.5%를 얻었다. 메드베데프는 대 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푸틴을 총리로 임명했다.

6) 푸틴은 유럽 최고의 부자인가

한편, 야권의 보리스 넴초프와 블라디미르 밀로프는 대선 전날. 『푸 팀: 업적이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냈다. 이는 푸틴 측근의 비즈니스를 낱낱이 파헤친 최초의 저술이 되었다. 푸틴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관 리로 지낼 때 인연을 맺은 은행가 유리 코발추크가 어떻게 자산을 키우 고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소개했다. (이때부터 코밬추크는 푸티과 측 근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은행가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또한 가스프롬 의 자산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어떻게 축재했는지,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중개회사 로스우크로에네르고의 정체는 무엇인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원유중개업자 군보르의 설립자 겐나티 팀체코가 어떻게 유코스를 인수한 로스네프트의 석유물량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출했는지 다루었다. 아브라모비치를 제외하고, 코발추크나 팀첸코는 언론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인사였으나, 이 팸플릿이공개된 후《포브스》는 두 사람의 이름을 억만장자 명단에 올렸다.

얼마 후 《포브스》는 로텐베르크 형제(보리스와 아르카디)의 이름도 명단에 올렸는데, 그들은 어렸을 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삼보 클럽에서 푸틴과 함께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다. 그들은 푸틴이 대통령이 된 후, 보드카 사업으로 시작해, SMP 은행을 설립하고, 또 가스프롬에 막대한 양의 가스파이프를 공급하는 업체가 되었다.

벨코프스키는 《국가와 올리가르히》에서 푸틴을 더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푸틴이 팀체코를 내세워 군보르, 가스프롬, 스르구트네프테가스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푸틴의 개인재산이 400억 달러에 이른다고주장했다. 벨코프스키는 정보 출처가 크렘린 내부 소식통이라고 했으나, 문서화된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푸틴은 벨코프스키의 주장에 대해 '쓰레기 더미에서 주은 것'이라며 무시했다. 이때 어떤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푸틴에게 물었다. "당신은 유럽 최고의 부자입니까?"

최근의 추정치는 훨씬 더 크다. 한때 러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포트폴리오 투자회사의 매니저 출신 빌 브라우더는 2017년 미국 의회 중언에서 푸틴이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이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 고 주장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푸틴은 세계의 4대 부자, 즉 아마존의 제프 베조

정당명	대표자	성향	2007년 총선 의석	2003년 총선 의석
			(5대 두마)	(4대 두마)
공산당	주가노프	보수좌파	57석, 2당	52석, 2당
통합-러시아	쇼이구	권력당	315석, 1당	223석, 1당
우파연합	넴초프	진보자유		3석, 6당
야블로코	야블린스키	중도자유		4석, 5당
자유민주당	지리노프스키	극우-중도	40석, 3당	36석, 4당
조국-인민-애국연합, 로디나(2003) / 정의 러시아(2007)	글라지예프 미로노프	관제 야당	38석, 4당	37석, 3당
기타 정당				12석
무소속				67석

2007년 러시아 총선결과

2기 푸틴 정부에서 선거법이 개정되어 지역구 선출이 폐지되고, 의원 450명 전원이 전국단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었다. 이전 선거법에서는 정당명부에서 5% 이상을 득표해야 의석이 배분 되었으나, 새 선거법에서는 7%로 상향되었다. 4대 두마까지는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들도 상당히 당선되었으나, 새 선거법하에서 통합-러시아당, 공산당, 자유민주당, 정의러시아당 4개 정당만이 의 원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고, 7% 미만 정당의 득표도 흡수하므로, 득표율에 비해 실제 의석은 더 많이 배분되었다. 우파연합이나 야블로코처럼 지역구에서 후보를 배출할 수 있었던 자유주의 정당 은 5대 선거를 통해서 두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정의러시아는 로디나의 후신으로 관제 야 당의 성격을 띠었다.

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애플의 베르나르 아르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보다 돈이 더 많다.) 그는 푸틴의 이름으로 등록된 돈은 단 한 푼도 없고,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푸틴의 친구인 전직 정육점 주인 피터 콜빈이 거대 석유중개회사의 대주주이고, 역시 푸틴 의 친구인 첼로 연주자 세르게이 롤두긴은 서류상으로는 20억 달러 규 모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자산의 실제 주인이 푸 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4. 두 번째 총리 (2008~2012)

1) 신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조지아 남오세티야 전쟁

2008년 8월 남오세티야(조지아) 전쟁은 메드베데프 신임 대통령의 첫 번째 시험무대였다. 남오세티야 전쟁은 무엇이었나?

조지아 영토 내의 남오세티야와 압하자야는 소연방이 해체된 후, 1990년대 초반 짧은 기간 조지아와 무력충돌을 벌이고 독립을 선포했다. 이후 외교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조지아의 일부로 남아 있으면서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독립공화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었다. 2008년 2월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자, 푸틴은 두 지역에 대한지원을 강화하여 주둔하는 러시아 평화유지군 병력을 증강했다. 2008년 5월, 나토 정상회담에서 조지아가 나토의 '행동계획 멤버' 자격을 얻는 데 실패한 후, 조지아의 사카쉬빌리 대통령은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해결을 제안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실 러시아는 조지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개입하기 위한 전쟁계획을 2006년 말에 세워놓은 상태였다. 2008년 여름 러시아군 지 휘부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와 가까운 코카서스 북부에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대규모 병력을 집결해 놓았다.

그러던 중, 8월 초부터 남오세티야에서 폭발물, 총격, 포격과 같은 충돌이 발생하고, 8일 조지아군은 분리주의자를 진압하기 위해 남오세 티야로 전격적으로 병력을 투입했다. 당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 석하고 있던 푸틴과 부시가 동시에 이 소식을 들었다. 다음 날, 푸틴 총

리는 북오세티야로 떠났고, 야전에서 전투복 차림으로 작전 브리핑을 받는 장면이 TV로 방송되었다. 러시아군 탱크가 츠한빌리에 도착했고, 곧 오세티아 지역을 넘어 스탈린의 출생지인 조지아 고리시로 진격했 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파견되었던 조지아 군인 2천 명을 조지아 로 공수해주는 도움을 줬지만.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 실을 분명히 밝혔다. 조지아에 파견된 미국 군사고문단도 아예 철수하 여 미국이 관여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고 했다. 조지아 측은 러시 아군이 직접 개입하리라 예상하지 못했고, 속수무책이었다. 12일 조지 아는 사실상 항복했고,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중재로 15일에 양측 이 평화안에 서명했다. 26일 메드베데프는 두 자치공화국을 독립 국가 로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세계에서 이들을 독립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러시아 를 포함해 5개국이다)

조지아 전쟁은 러시아 내에서 민족주의 감정을 크게 부추겼고. 그 중심에는 메드베데프가 아니라 푸틴이 있었다. 메드베데프가 창백한 얼굴로 크렊린에서 전쟁명령을 내릴 때. 푸틴은 야전에서 군을 지휘하 는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메드베데프는 형식적으로 국가수반이었으나. 그의 입장은 항상 오락가락 해보였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총리 푸틴의 '재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조지아 전쟁은 러시아가 군사적 행동을 할 때, 나토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러시아 측에 교훈으로 남겼다. 사실 유럽의 나토 회원국 중에는 러시아의 막강한 육군력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지닌 나라는 없다.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가 해외파병이 가능한 규모 의 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들도 자국 밖에서 러시아군과 전투를 벌일

능력은 없다.¹³ (미국의 도움 없이는) 대규모 군대를 역외로 수송할 수단도 없고, 러시아군과 같은 막강한 군대를 적으로 상정한 작전계획과 준비도 없다. 탈냉전 이후 나토가 상정한 시나리오는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모형이었다. 즉 인종학살, 민족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 나토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초점이었지, 남오세티야 전쟁처럼 러시아 육군이 아무런 예고 없이 기동군, 자동화사단, 여단전투단을 동원해 진격하는 상황은 애초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나토는 남오세아티야 전쟁과 러시아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고 부랴부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면 남오세티야 전쟁 후 나토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 ① 2009 년 3~4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나토 복귀를 선언했다. 프랑스는 1966년 나토 탈퇴를 선언하며, 나토의 정책과 전략이 프랑스의 정체 성과 이익이 반한다고 밝혔으나,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공식적 입장을 바꿨다. ② 2009년 발표된 나토 과업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침략거부·방위와 국경 안전보장'이 올라갔다. 그 이전에 중요 항목으로 있던 치안위기 대응, 자연재해 복구, 수송·통신·의료를 아예 삭제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제는 군대가 여유로운 평시가 아니라는 인식이 반영된 셈이었다. ③ 나토군 사령관에게 나토대응군에 대한 전시·평시 작전지휘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는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 해외 파병이 가능한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자는 함의를 담고 있었다. 또 하나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나토군의 일부를 평시에도 주둔하자는 제

¹³ 남보람, 「러시아의 영토확장 행동에 대한 나토와 미국의 군사적 대응 연구: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7권, 2021.

안도 나왔는데, 이는 나토대응군이 아무리 빨리 출동해도 러시아 육군 이 동유럽국 수도에 도착하는 것보다 빠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 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안은 말로만 이뤄질 뿐 현실에서 강하게 추진되 지는 못했다. 가장 큰 장애는 예산 부족이었다. 계획상으로는 나토 회 원국 군대의 일부로 구성된 나토대응군의 인원을 증강하자고 했으나 실 제로는 현재원이 감소했다. 나토는 뚜렷한 결실도 없는 상태에서 2014 년 크림반도에서 벌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2)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개헌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신청과 함께 금융 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러시아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 작했다. 러시아 기업이 외국은행에 대규모 부채를 지고 있었고, 국제유 가는 급락하기 시작해 10월에 이르면 배럴당 34달러로 떨어졌다.

다만 1998년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러시아는 대규모 외화준비금을 지니고 있었는데, 2008년 8월 시점에 약 5980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규모였다. 그래서 러시아는 외환준비금을 믿 고, 극단적인 케인스주의 정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즉 G20 국가 중 에서 최대 규모의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책을 펼쳤다. 2008년에 GDP 의 4.1%에 달하는 재정흑자는 2009년 GDP의 -6.0%의 재정적자로 반 전되었다. 정부는 국영 대외경제개발은행(VEB)을 통해서 국유기업과 민 가기업에 5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준비금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1040억 달러를 썼다. 또한.

과대평가된 루블화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2000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러한 케인스주의 정책은 합리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결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GDP는 2009년 -7.8%를 기록해 G20 국가 중 가장 많이 하락했고, 러시아의 미래 생산성은 더 악화되었다. 주입된 자본 중 상당량이 러시아 밖으로 빠져나갔다. IMF는 러시아의 2008년 자본도피가 1190억 달러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와 올리가르히가 소유한 비효율적인 거대기업을 구제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기업을 몰아내는 결과를 낳았다. '전략적' 국유기업이라고 지목된 481개 국유기업 중에서 79개가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즉 수익성이 떨어져서 위기 이전에 더 많은 부채를 쌓은 기업이 위기 동안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컸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은 구제금융 이후 생산성은 하락했지만, 규모는 더 커졌다. 즉 정부는 최악의 기업에 돈을 썼고, 이는 그들의 실적을 더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 꼴이 되었다.

러시아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외부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고, 2010~12년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정체 상태에 빠진 유로존 국가들에 비해서는 괜찮아 보였다. 거시경제도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경제구조가더 악화되고 개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심지어 유가가 높은 상태에도 경제성장률이 점차 하락했다.

한편, 금융위기가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던 2008년 11월, 메드베데 프 대통령은 개헌을 제안했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 자는 제안이었다. 왜 개헌을 해야 하는지 뚜렷한 설명은 없었다. 푸틴은 선거를 자주 실시하는 게 과거 소련 소속 국가들에서 벌어졌던 색깔 혁명'의 빌미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9일이 안 걸려 개헌안이 두마에

회부되었고, 공산당만 반대했다. 곧 두마와 상원을 통과했고, 12월 30 일 메드베데프는 개정헌법에 서명했다.

3)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2009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부시 말기 팽팽한 긴장 관계를 보였던 미국-러시아 관계를 재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마바 행정부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었는데, 푸틴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직 점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간이 지나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독자 적인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바마와 메데베데프는 부시-푸틴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대체할 후속 협정. 뉴 스타트를 개시했다. 이란의 비밀 우라늄농축 프 로그램에 대해 러시아도 미국과 함께 유엔안보리 제재안에 동의했다. 오바마는 체코와 폴란드에 미사일방어망을 배치한다는 부시 행정부의 계획을 보류했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국내정치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자제하기로 했다.

실제로 2010년 1~2월에 치러진 우크라이나 대통령선거에서는 야누 코비치(우크라이나 지역당)가 티모셴코(전우크라이나연합 조국)를 누르고 대 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2004년 대선을 앞두고 알타에서 푸틴과 회담 을 열고 푸틴의 거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을 받았으나. 부정선거 시 비로 재선거 끝에 떨어졌던 이물이었다.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이 된 후. 경쟁자였던 티모셴코는 배임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유럽연합, 나토 가입을 백지화하고 친러시아 정책을 펼쳤다.

한편, 2010년 4월에는 FBI가 위장 신분으로 활동 중인 러시아 정보 요원 11명을 적발했지만, 백악관은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다루기도 했 다. (이들은 푸틴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활동했던 요원들이었다.)

2010년 12월 튀지니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시위는 2011년 이집트에서 무바라크 정권을 무너뜨렸고, 리비아에서는 카다피 정권을 위협했다. 이때 카다피가 공군을 동원해 민간인을 학살하자, 2011년 3월 18일유엔안보리는 유엔헌장 42조에 따라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설치를 결의했다. 이때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비상임국인 독일, 브라질, 인도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는 상임이사국 5개국의 반대가 없고,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러시아의 기권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훈령에 따른 것이었는데, 기실 안보리 결의를 묵인한 셈이었다. 메드베데프는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오바마 행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당시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메드베데프에게 민간인 대량학살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던 상황이었다.

이때 푸틴이 안보리 표결 전에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푸틴의 측근은 미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푸틴은 메드베데프가 서방의 농간에 놀아났다고 확신했다. 안보리의 목표는 단순히 민간인 보호가 아니라 카다피 정권의 전복이며, 이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에 반한다고 보았다. 리비아 문제는, 그 이전과 달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 간 분명한 이견이 드러난 장면이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연임을 원하는지, 푸틴은 이를 용인할지, 모든 게 불확실했다. 오직 푸틴만이 둘의 미래를 알고 있었다.

4) 2011년 총선과 2012년 대선

2011년 9월, 통합-러시아당 전당대회에서 둘의 미래가 밝혀졌다. 메 드베데프는 자신이 당의 비례대표 1번이 되어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푸틴 총리를 다음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자 많 은 사람이 2008년 개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에 따르 면, 푸틴이 당선되면 2018년까지 재임하고, 또 연임하면 2024년까지 집 권하게 된다.

푸틴의 대통령 복귀가 뉴스에 나오면서 그의 인기는 2000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푸틴을 야유하고 조롱하는 온갖 콘텐츠가 트 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브콘탁테(러시아파 페이스북)에 넘쳐났다. 이를 생산, 유통한 사람들은 인터넷 미디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수준 도 높고 금전적으로도 여유 있는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2011년 총 선에서 통합-러시아당이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연일 보도되었다. 여 론 조사 결과 과반의석도 어렵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푸틴은 모든 방법 을 동원해 득표율을 끌어올리고자 했다.

2011년 총선은 어느 때보다 광범위한 부정이 벌어졌다. 특히 시민 들이 부정선거 장면을 채집해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다. 노골적인 무더 기 투표나, 같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투표소를 돌아다니며 투표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올렸다.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관리자가 자기 손으로 투표용지 한 다발을 직접 손으로 찍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 선거감시단은 투표소 3곳 중 1곳꼴로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1년에는 OSCE를 포함해 685명의 국제감시 단이 파견되었다)

최종 결과, 푸틴의 통합-러시아가 49.32%를 득표해 과반에 육박하는 238석을 얻었다. 그러자 보리스 넴초프가 이끄는 야당 솔리다리티가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가장 주목을 끈 인물은 알렉세이 나발니였다. (그후 넴초프와 나발니가 겪게 된 운명에 대해서는 미리 앞에서 다뤘다.)이 집회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12월 24일 집회에는 거의 20만 명이 모였다. 1991년 8월 보수 쿠데타를 막기 위해 모였던 시위 이래 최대의 인파가 집결했다. 학자, 정치전략가, 관료, 러시아정교회 사제 등 항상 푸틴을 지지했던 엘리트 계층도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메드베데프는 시위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몇 가지 양보안을 제시했다. 2004년에 폐지한 지역선거를 부활한다든가, 정당 창당 요건을 완화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푸틴은 강력한 반격을 선택했다. 러시아가 서방의 부패한 가치에 정면으로 맞서는 문명국이고, 시위참여자들은 서방의 가치를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공격했다. 러시아정교회의 키릴 총대주교는 소련의 해체 후 혼란을 말하면서 푸틴 덕분에 끔찍한 체제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며, 푸틴에 대한 일종의 '충성 서약'을 발표했다. 시위가 절정에 이르렀던 12월 1월 여론 조사에서는 푸틴의 과반 득표가 어렵다고 나왔으나, 2월에 들어 지지율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3월 4일 대통령선거에서 푸틴은 63%를 득표했다. 과거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그래도 대승이었다. 역시 여러 부정투표의 증거가 나왔으나, 푸틴의 압도적 승리를 뒤집어엎을 정도는 아니었다. 시위 주도 세력은 대선 후 크게 낙담했다. 대선 다음 날 2만 명 정도가시위에 참여했으나, 앞으로의 방향성을 두고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

5. 세 번째 대통령 (2012~2018)

1) 반푸틴 시위세력의 무력화

푸틴은 세 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반정부 인사들을 단계적이 고. 선별적으로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푸틴의 취임식 날. 모스크바 볼로트나야 광장에서 벌어진 시위의 주동자, 참가자들이 일차 목표였 다. 알렉세이 나발니, 보리스 넴초프, 일리야 야신, 크세냐 소브차크(푸 팅의 상관이던 아나톨리 소브차크의 딸) 등 야당 인사가 가택수색을 받았다.



[그림9]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참석자

2011년 12월 10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집회에 한 참석자가 푯말을 들고 서있다. "나는 이 자들에 게 투표하지 않았다. 통합러시아당을 조롱하는 로고. (통합러시아당의 상징은 곰인데, 곰이 돈주머 니를 물고 있다.) 나는 다른 자들에게 투표했다. 야블로코, 정의러시아, 공산당의 로고. 나는 재검표 를 워하다."

두마는 3월에 불법시위 참가자에 대한 벌금을 5천 루블에서 30만 루블 (거의 1만 달러)로 인상했다. 또 7월에는 외국의 자금지원을 받는 단체에 '외국의 대리인'(foreign agent)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10월에는 국가반역죄의 범위를 넓혀서 '국가기밀'을 본의 아니게 외국 정부나 국제단체에 제공하는 행위도 반역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정보가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정보라 해도 처벌할 수 있었다. 정부 관리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했다.

또한, 2012년 여름, 나발니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어, 횡령죄에 여타 혐의가 덧붙여졌다. 나발니는 법정 싸움을 벌이느라 다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와 두마의 대응방침이 강경해지면서 반푸틴 활 동도 점차 수그러들었다.

2) 2013년 시리아 화학무기 이슈에서 푸틴의 외교적 승리

2013년 8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에서 신경가스를 장착한

정당명	대표자	성향	2011년 총선 의석	2007년 총선 의석
			(6대 두마)	(5대 두마)
공산당	주가노프	보수좌파	92석, 2당	57석, 2당
통합-러시아	쇼이구	권력당	238석, 1당	315석, 1당
자유민주당	지리노프스키	극우-중도	56석, 4당	40석, 3당
조국-인민-애국연합,	77171017			
로디나(2003) / 정의	글라지예프 미로노프	관제 야당	64석, 3당	38석, 4당
러시아(2007)	미도포프			
기타 정당				
무소속				

2011년 러시아 총선결과

로켓포 공격으로 1400명이 숨졌다. 오바마는 2년 전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었다. 미국방부는 시리아군을 향한 보복 미사일 공격계획을 수립했다. 푸틴은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는지,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가 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미국의 공습 개시를 몇 시간앞두고 입장을 바꿔 의회의 승인을 먼저 얻겠다고 했다.

9월 G20 정상회담에서 다른 나라들의 정상은 아사드의 잔혹한 진압 작전을 옹호하는 푸틴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시리아에 대한 무력개입은 유엔안보리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푸틴의 입장에는 지지를 보냈다. 푸틴은 오바마와 개별 회담에서 시리아가 국제감시단의 입회를 받으며 화학무기 보유분을 공개하게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고, 미국 의회의 반대에 직면한 오바마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집권이후 국내에서 강권 통치로 비난을 받던 푸틴이 갑자기 시리아에서 전쟁을 막은 영웅이 되었다. 러시아 NTV는 시리아에서 미국의 공습을 막은 공로로 푸틴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9월 12일 《뉴욕타임스》에 미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아프간, 이라크,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효과적이지 않고 무의미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사용은 유엔안보리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침략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푸틴도 2008년 조지아를 침공할 때나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무기를 지원할 때 유엔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푸틴의 주장은 미국 내에서도 박수를 받았다. 10월 《포브스》는 오바마를 제치고 푸틴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했다.

3) 푸틴의 유라시아주의와 2014년 크림 합병

2013년 시리아 화학무기 이슈에서 외교적 승리를 거둔 푸틴은 유럽-대서양 국가들이 기독교적 뿌리를 버리고 위험스럽게 표류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민족, 문화, 종교, 심지어 성적인 가치마저 버리고 있다. 사탄을 믿으면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착각한다. 더 고약한 것은 이런 위험한 생각을 다른 나라에 주입하려한다"고 말했다.

푸틴은 대통령으로 복귀한 후, 유럽-대서양에 대항하는 유라시아주의를 제일의 정책으로 내세웠다. 그는 소련의 해체 후 표류해 온 연방공화국들을 다시 묶어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광범위한 경제협력체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유럽연합과 나토에 편입된 발트3국은 제외하고, 유라시아와 흑해에서 중앙아시아, 시베리아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스텝 지대를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면서, '세계의 섬'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광대한 대륙을 차지하기 위한싸움에서 유라시아가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해퍼드 매킨더의 19세기지정학 이론도 끌어왔다.

(앞에서 언급했던 러시아혁명기 백군의 이데올로그) 이반 일린의 종교적 신앙과 군주제에 대한 신념, 유라시아 지정학 이론이 뒤섞여 러시아를 타락한 서방과 대립하는 진정한 문명의 중심국으로 내세우는 극히 복 고적 정치이념이 푸틴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떠올랐다.

푸틴이 유라시아연합에 가장 끌어들이고 싶은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였다. 푸틴은 2004년 오렌지 혁명 직전에 우크라이나 대선에 직접 개입했던 것처럼, 2013년에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저지하기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3년 7월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



러시아의 여성 펑크록 집단 푸시 라이엇(Pussy Riot)의 반푸틴 성당 시위

대선 직전인 2012년 2월 21일 이들은 모스크바의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에서 성당 측의 허가 없이 푸틴에 반대하는 내용의 즉석 공연을 벌였다. 이들은 성당에서 노래를 무르며 테오토코스(마리아) 에게 푸틴을 내쫓아달라고 첫했다. 그러면서 총대주교 키릴이 신보다 푸틴을 더 믿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이후 성당 측의 고발로 3명이 체포돼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 세계적 구명 운동이 벌어졌는데 폴 매카트니는 "러시아 당국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당신들을 처벌하지 않 기를 가절히 바란다"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는 열차 객차와 로센이 만드는 과자류 수입을 금지했다. (로센의 소유주 는 페트로 포로셴코였고, 그는 유럽과의 경제통합을 지지했다. 포로셴코는 러시아 의 크림반도 합병 와중에 치러진 2014년 5월 25일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 다) 8월에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타과 맺은 관세동맹의 관세법을 무리하 게 적용해 우크라이나와의 모든 교역을 전면 중단했다. 푸틴은 10월, 11 월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연거푸 만나 유럽연합 가입을 포 기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때 푸틴이 어떤 압력을 가한 것이냐를 두고 많 은 말들이 나왔다. 개인적인 협박을 한 것이 아니냐, 그에게 큰 이권을 안겨주는 비

밀거래가 있던 것이 아니냐 등등.) 야누코비치는 이 회담을 거치며 입장을 바꾸었고, 11월 21일 유럽연합과의 협력협정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2004년 오렌지 혁명과 비슷하게, '유로마이단'이라고 불리게 될 대규모시위가 폭발했다. 12월 푸틴은 러시아 국가복지펀드기금을 우크라이나 국채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150억 달러를 지원하고, 가스프롬은 천연가스 가격을 입방미터당 400달러에서 268달러로 할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2014년 2월 7일,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는데, 푸틴은 올림픽 기간 중 러시아 내에서 시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선제조치를 취했다. 균형 있는 보도를 한다는 평을 들은 리아 노보스티 통신을 폐쇄하고, 민간 텔레비전 방송국 도즈드의 허가를 취소했다. 법원은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저질러진 환경파괴 사례를 모은 보고서의 발표를 막기 위해 북코카서스 환경워치 소속 활동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금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기 전, 2월 18일 유로마이단 시위가 다시 격화되었다.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3국의 외무장관이 키이우로 달려와 중재안을 찾고자 했다. 야누코비치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의사를 보였으나, 푸틴은 전화를 걸어 그것은 매우 굴욕적이고 위험스러운 조치라고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결국 야누코비치는 유럽의 중재를 받아들였고, 2월 23일 푸틴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로 도주했다. 의회는 절차상으로하자가 있기는 했으나, 야누코비치의 탄핵안을 처리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임명했다.

푸틴은 소치 올림픽 폐막식을 마칠 때까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

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2월 23일 비밀 작전명령을 내렸는데, 최측근 인사를 제외하곤 정부 각료도 그 사실을 몰랐다. 26일 러시아 서부에서 수만 명의 병력이 참여하는 훈련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 정예 특수작전 병력을 우크라이나 내부에 배치하는 것을 위장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27일 새벽 러시아군 크림반도 기지사령부 소속 병력이 크림반도 지역 의회를 비롯한 주요 건물과 비행장을 장악했다. 투입된 병력의 군복에는 아무런 식별도 없었는데, 이는 사전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접수한 비행장을 통해 24시간 안에 수천 명의 병력이 추가 투입되어 크림반도 전역을 장악했다. 긴급 소집된 크림지역 의회는 자치권 확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5월 25일에 실시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었다. 3월 1일러시아 상원 격인 연방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사용을 승인했으나, 이미 푸틴의 명령에 따라 침공이 벌어진 후, 공격을 승인한 꼴이었다.

푸틴은 크림반도에 러시아군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4월에야 러시아군의 존재를 인정했다. 우크라이나 거주 러시아인의 폭력을 당할 위험 때문에 러시아군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유럽연합, G8 회원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영토를 빼앗으려 한다면 G8 회원국 자격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제재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크림반도 합병을 계기로 G8 체계는 해체되었다.) 새로 구성된 크림 의회는 일정을 앞당겨 3월 16일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3월 16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크림반도 는 러시아 땅"이라는 구호가 쓰인 깃발로 뒤덮였다. 3월 18일 푸틴은 크 림과 세바스토폴이 러시아연방의 새로운 부속 영토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날 붉은 광장에서는 집회와 콘서트가 열렸는데, 신성한 축일을 기념하는 국가적인 축제와도 같았다. 크림반도 합병으로 푸틴의 지지율은 85%를 넘어섰다. 푸틴은 불과 1년 전,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아사드 정권에 보복공격을 가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계획이 주권국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푸틴의 크림 침공 이전, 다른 국가의 영토를 합병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 가장 최근 사례는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뿐이었다. 이때는 유엔의 승인 아래 다국적군이 이라크군을 다시 몰아냈으나, 푸틴은 서방이 크림반도에서도 그때와 같은 대응을 하지는 못하도록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했다. 서방은 러시아군이 크림반도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타이밍을 놓쳤다. (설사 러시아군이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2022년 우크라이나전쟁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듯이, 나토의 유럽회원국은 국외에서 막강한 러시아 육군에 대항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칠 군사적 능력이 없었다.)

크림반도 합병 며칠 뒤, 우크라이나 동부의 몇 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시위대가 행정관서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 크에서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5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몇 주 뒤, 푸틴은 새로운 러시아라는 뜻의 '노보로시야'라는 용어를 쓰 면서 오데사에서 러시아와의 국경이 이르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영유권 이 러시아에 있다고 주장했다. (회고해 보면,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고하는 발언이었다.) 7월에는 동부지역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강도가 높 아지면서 러시아가 정규군을 보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지원을 결코 옵션으로 고려하지 않

았다. 하지만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3월 유럽연합과 미국은 크 림 관련 제재를 발표했는데 관련된 개인과 기업의 비자 발급을 금지하 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였다. 미국의 제재에서 새로운 점이 있다면. 푸틴의 측근 중 네 명이 제재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앞에서 언급 한 푸틴의 '경제공동체') 코발추크, 로텐베르크 형제. 팀체코다. 7월 동부지 역에 러시아가 정규군을 밀어 넣자. 7월 16일 미국은 추가적인 부문별 경제제재를 발표했다.

그 다음 날인 7월 17일,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이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러시아제 미사일 라 주저하던 유럽국가도 미국과 유사한 제재를 실행하게 되었다. 이러 한 부문별 제재는 크게 세 부문을 타깃으로 삼았는데. 금융. 석유. 군사 기술 분야였고, 주로 러시아 국유기업이 대상이 되었다. (2016년 국제조사 단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발사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4) 러시아 경제와 크림반도 합병

러시아 경제는 2009년 이후로 정체 상태를 극복하지 못했다. 러시 아의 일 인당 GDP는 1만 달러에 근접했으나 더는 치고 오르지 못했다. 러시아는 전형적인 '중위소득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함 정이란 지금까지 급속히 성장했던 경제가 중위소득 수준에서 정체 상 태에 빠져서 고소득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러시아의 공 공재정이나 대외부채는 안정적인 편이지만 혁신을 달성하지 못하고, 생

산성을 높이지 못했다. 러시아의 GDP는 2014년 이후로 유가 하락과 경제제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급락하기 시작하여 2020년 현재 1.48조달러로, 한국 1.64조 달러보다 아래다.

왜 그런가. 스웨덴의 경제학자 안데쉬 오슬룬드는 여기서 대런 애 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이론을 인용한다.¹⁴

부패와 권위주의가 결합한 러시아 모델은 (포용적이지 않고) 착취적이며 악순환에 빠져 있다. 러시아의 현 정부에서 경제개혁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왜냐하면 이는 사법개혁, 정치개혁을 필요로 하지만, 현 정권이 이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법치와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운 정부라도 성공을 거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애쓰모글루에 따르면, 경제 규모가 크고 기술적 수요 수준이 높지 않은 경제에서, 과두제적 소유권(러시아식으로 말하면 올리가르히의 경제 지배력)은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라면 빠른 성장을 낳을 수도 있다. 행정적 장벽이 경제발전의 주요 장애가 될 때, 대기업이 이를 쉽게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강과 같이 전형적인 중간단계 산업에서 과두제적 소유권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발전이 높은 단계에 들어서려면 법의 지배나 지적재산권의 실행이 경제성장에 더 중요해지는데, 그래야만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러시아의 국유기업과 올리가르히는 경제발전이 높은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¹⁴ Anders Aslund, Russia's Crony Capitalism: The Path from Market Economy to Kleptocracy, Yale University Press, 2019의 결론을 보라.



크림 합병을 축하하는 집회에서 푸틴이 연설하는 장면 (2015년 3월 18일)

또한, 경제성장은 자본투자, 기술, 인적자본, 제도에 의해 결정된 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러시아에서는 자본도피 때문에 매년 GDP의 3~4%에 달하는 투자손실이 발생한다. (그런데 푸틴의 측근 집단이야말로 자본도피의 주역이다.) 반면 소유권 보장이 취약하고 크림합병 이후 경제 제재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는 그러한 투자손실을 벌충할 만큼 유입되 지 않는다. 또한, 러시아의 노동력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연간 거의 1% 씩 감소할 전망이다. 나아가 러시아의 교육투자는 아주 인색한 편이다. 또한, 러시아는 점진적으로 나타났던 제도의 파괴(권력의 사유화)로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중간소득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제 도적 전제조건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제적 힘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군사적 힘은 막강하다는 불균형이 존재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 르면, 2016년 러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군비를 지출하는 나 라로, 690억 달러를 썼다. (1위는 당연히 미국으로 6110억 달러, 2위는 중국으로 2150억 달러다.) 러시아는 2008년 이후로 군비지출을 늘리기 시작하여 재무장과 현대화를 추구했다. 군비지출은 2008년 GDP의 3.3%에서 2016년 5.3%로 그 비중이 늘어났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하기는 어렵지만,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훨씬 더 강하다. 또한, 핵 무력이란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슈퍼파워로 남아 있다.

다른 한편,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2006년 국제유가가 급상승한 후 종종 '에너지 슈퍼파워'에 대해 언급하곤 했다. 그러나 2014년 에너지 가격이 급락한 후 이런 이야기는 힘을 잃었다.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 측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잠재력이 있었으나 측근들이 에너지 부문을 장악하는 과정을 거치며 그런 잠재력을 지닌 인사나 기업이 모두 외국으로 떠나버렸다.

종합해보면, 러시아의 자산은 매우 불균형적이다. 러시아의 경제력, 예컨대 GDP는 유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 세계 6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한국보다 아래로 떨어진 상태고, 더 하락할 수도 있다. 반면 군사력은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경제력이 하락하면 군사비 지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강대국이 쇠퇴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상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지도자는 그 막강한 군사력을 아직 활용할 수 있을 때, 휘둘러 보고자 하는 강렬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2014년 이후, 바로 그런 이유로 러시아는 전쟁을 벌였다. 크림반도 합병, 우크라이나 동부로의 침입, 시리아에서 군사개입이 이어졌다. 이는 바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5) 푸틴의 정치적 정당성과 크림반도 합병

2000~2008년 푸틴 첫 번째 집권기의 특징은 생활 수준의 향상과 정치적 안정성이었다. 푸틴도 처음에는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렇지 만 그는 점점 더 민주주의가 주는 이익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되었지만 말이다) 2008년 푸틴은 연방위원회 연설에서 자신의 성취를 이렇게 요약했다. "러시아는 강대국으로 세계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우리가 달성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안정성입니다" 1998~2008년 러시아는 기록적인 경제성 장을 달성했는데, 연간 평균 실질 GDP 성장이 7%에 달했고, 생활 수준 도 빠르게 상승했다 러시아 GDP는 1999년 0 2조 달러에서 2008년 1 6 조 달러로 급증했다. 푸틴에 대한 지지는 일차적으로 소비의 성장에 기 초를 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2009년 이후로 러시아 경제는 정체 상태에 빠졌고, 경제 성장은 1.5~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 는 푸틴 정권을 당장 무너뜨릴 수준은 아니더라도 열정적인 지지를 잠 식할 가능성을 내포했다. 푸틴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실업을 최소 화하는 거시경제적 안정을 추구했지만, 생활 수준을 더 높일 수는 없었 다. 이제 푸틴은 점점 더 정치적 억압과 여론 조작에 기댈 수밖에 없었 다.

1차 집권기를 거치며 구축된 푸틴 정권은 기본적으로 푸틴 개인에 의존한 권위주의 체제였다. 푸틴의 개인적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것 외 에는 별다른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이 없었다. 푸틴은 공식적으로 정당 에 속해 있지도 않았고. 사실상 여당이던 통합-러시아당도 뚜렷한 이데 올로기나 정치적 색깔이 없었다. 푸틴이 없으면 금방 무너질, 거꾸로 세

워진 피라미드와 같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는데, 푸틴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푸틴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안정성을 대체할 정당성의 원천을 찾아야 한다고 정확히 인식한 듯하다. 또한, 러시아 주변국, 대표적으로 조지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에서발생한 '색깔 혁명'이 러시아의 정치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다. 푸틴은 '외부의 적'들이 가하는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찾을기회를 엿보았다.

러시아 관리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다. "우리는 소규모의 승리하는 전쟁을 필요로 한다." 이는 차르 시대의 내무장관 플레베가 한 말이다. (이는 러일전쟁 직전에 한 말인데, 러시아로서 러일전쟁은 작은 전쟁도, 승리한 전쟁도 아니었다. 러일전쟁의 패배는 차르 정부에 막대한 타격을 가했다.)

푸틴은 소규모의, 승리하는 전쟁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가 1999년 총리가 되었을 때 주도했던 2차 체첸전쟁은 그를 대통령의 길로 이끌었다. 2003년 유코스 오일의 호도르코프스키를 구속한 사건은 '올리가르히와의 전쟁'으로 묘사되었다. 2008년 조지아를 상대로 한 남오세티야 전쟁은 '소규모의 승리한 전쟁'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표본이 되었다. 그것은 실전이었으나, 기간도 매우 짧고 비용도 크지 않았다. 푸틴의 인기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4년에는 유로마이단 시위 이후 우크라이나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전격적으로 크림반도를 합병했다. 푸틴의 인기는 또다시 최고치를 갱신했다.

그렇지만 2015년 크림반도에 이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한 개 입은 뚜렷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두 지역을 제 외하고는 장악에 실패했다. 두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이 지원 또는 지휘를 행하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책이 없이 저강도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규모의 승리하는 전쟁'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푸틴의 전술은 위험에 빠졌다.

이는 러시아 경제에도 상당한 위험을 의미했다. 돈바스 지역의 저강도 전쟁에 소모되는 비용이 대략 연간 GDP의 0.3%를 차지하고, 크림합병 이후 경제제재에 의해서도 연간 1~1.5%의 GDP 손실이 나타났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군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에서 2%p 상승했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푸틴의 전쟁 정책에 의해 연간 GDP의 3~4%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셈인데, 연간 경제성장률이 1.5%인 나라에서 이 정도 비중이 결코 적은 게 아니다. 2018년 여름 러시아 정부는 은퇴연령을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0세로 올리며, 부가가치세를 18%에서 20%로, 2%p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실질 가처분소득은 17% 하락했다. 이는 러시아경제가 실제적인 어려움에 빠졌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푸틴의 정치적정당성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다. 따라서 푸틴은 돈바스 지역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결단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돈바스를 우크라이나에 돌려준다고 결정하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러시아의 야당 정치가, 레오니드 고즈만은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 국가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있을 만큼 취약한 구조다. 즉 부 패에 맞서는 싸움, 선거에 대한 독립적 감시, 도둑질을 하거나 무능력한 관리를 추방하자고 요구하는 시위 등등." 국가의 결정은 "시민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에, 또는 국가자본가나 특수공무원에게 이익을 주는 식으 로 결정되곤 한다. 그들은 '우리가 곧 국가라고 말한다." 그 결과 국가 예산은 점점 더 군사화되고, 과학, 교육, 보건을 위한 예산은 희생된다. 이러한 국가재정 할당을 정당화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외부의 위협 (나토와 테러리스트)에 대해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대비하는 것은 러시아 인민의 공격이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인민의 공격이 최종적 위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6. 나가며: 크림합병 이후 푸틴과 러시아

1) 선거마다 승승장구하는 푸틴

2015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푸틴 체제는 선거결과만을 두고 보면 승승장구했다. 2016년 9월 총선(7대 두마)에서도 47.88%의 투표율에서 통합러시아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13년 만에 지역구 선거가 부활해서, 지역구 225석 중에서는 통합러시아당이 203석을, 정당명부 비례대표 225석 중에서는 통합러시아당이 54.20%의 득표율로 140석을 얻었다. 450석 중 도합 343석을 얻어 다시금 단독 개헌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했다. 2016년 총선에서 통합러시아당이 압승을 거둔 이유는 무엇보다 '크림 컨센서스'였다. 즉 크림 합병 이후 푸틴 지지도가 치솟은 결과였다. 또한, 선거제도 개편도 통합러시아당에 유리하게 작동했다. 애초 지역구의 폐지는 야당이 두마에 진입할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이제 지역구를 새로 부활하더라도 야당으로서는 13년의 기간을 거치며 지역조직이 사라졌고 새로이 이에 대응할 만한 역량이 없었다. 따라서 집권 여당이 지역구를 거의 싹쓸이할 수 있었다.



푸틴의 신뢰도는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때(2000-2004) 평균 75% 수준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임기 초, 2004년 9월 베슬란 인질 사태에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며 신뢰도가 하락하다가 2000년 중 반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났고, 2013년 11월에는 61%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는데, 이때 부정선 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그러다가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을 계기로 신뢰도가 다시 급상승했다. [자료출처: https://www.levada.ru/indikatory/odobrenie-organov-vlasti/]

한편 집권세력은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투표소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고 대규모 참관인을 조직했으며, 선거 법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부정선거 사례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2011년처럼 대규모 시위가 조직될 만한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았다. 문제는 선거 그 자체에서 벌어 지는 부정이라기보다는 선거에서 경쟁할 만한 세력이 출현하지 못하도 록 사전에 억제하는 억압적 정치 과정이었다. 크림반도 합병과 전쟁을 비판한 소수 정치인 중 하나인 넴초프가 2015년 2월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2018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도 푸틴이 여유롭게 승리를 거두었다. 67.5%의 투표율에 76.69%를 득표했다. 선거 전 여론 조사에서는 줄곧 60% 중후반대를 기록하다가 선거에서는 더 높은 득표를 했다. 푸틴은 2018년 대선에서도 '크림 컨센서스'를 이어가려 했다. 원래 대선일은 3월 11일이었으나, 크림 병합 4주년인 3월 18일로 선거일을 옮겨버렸다. 또 선거 직전에는 러시아 본토와 크림을 연결하는 크림대교 건설현장과 세바스토폴항을 방문했다. 또한, 3월 1일 연례 국정연설에서는 미국의 MD 체계를 돌파할 수 있는 여러 전략무기를 직접 소개하며 핵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지위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승리를 바탕으로 2020년 광범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6월 국민투표에서는 67.97%의 투표율에 77.92%라는 압도적 지지율이나왔다. 그 핵심적 내용을 살펴보면, 한 축으로는 푸틴의 초장기 집권과 대통령 권한 강화가 담겨 있었다. ① 푸틴이 앞으로 두 번, 즉 12년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동일인이 대통령을 최대두 번만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전,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다시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다. ② 재임중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이 전임 대통령으로 확장되었다. 불소추특권의 박탈은 탄핵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푸틴은 가장 강력한 안전보장 수단을 확보했다. (2020년 말에는 별도의 법이 통과되어 대통령 '가족'으로면책특권이 확대되었다.) ③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서, 총리가 장관을 제안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통령이 국방, 국가안보, 내무, 법무, 외무, 비상사태 방지, 사회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주요 장관을 직접 임명하게 했다. 총리는 경제사회 분야 장관의 후보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한 축으로는 푸틴의 대외정책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① 연방 일부를 분리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호소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크림반도 병합을 비판하는 행위를 전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품고 있었다. ② 국제조약에 기초 한 국가 가 기구의 결정사항이 헌법에 배치되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 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과 같은 경우를 무시하겠 다는 의사의 표명이었다.

또한, 푸틴 집권 2기부터 분명하게 나타난 반동적 복고주의, 문화적 보수주의가 헌법 곳곳에 들어갔다. 가장 놀라운 대목 중 하나는 ① 선 조의 유산 보존', '천 년의 역사', '역사적으로 부여된 국가적 통합성'을 말 하며 러시아가 '소련의 법적 계승자'라고 명시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서 러시아가 '조국 수호자의 유산을 존중'하고,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 며 '조국 수호를 위한 민족적 공헌의 의미를 격하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 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자. 스탈린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를 동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② 러시아의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었 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③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서 결혼제도 를 보호'한다는 항목도 첨가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차르와 스탈린을 모 두 포괄할 수 있는) 유라시아주의 또는 유라시아 버전의 팽창주의, 애국주 의. 종교적·문화적 선민의식 등등이 복합된 푸틴식 이데올로기가 헌법 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정헌법은 대통령, 상하원 의원, 총리, 장관, 법관, 검사 등 고 위공직자의 자격조건으로 타국 시민권과 영주권 미보유를 요구하고. 국외 외국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귀중품 보관을 금지했다. 대통령 자격 요건은 국내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5년으로 늘렸다. 이는 정치적 경쟁 자를 배제하려는 의도였다. 실제로 2021년 총선에서 공산당 후보 파벨 그루디닌은 국외자산 보유를 근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¹⁵

2021년 국가두마 선거도 통합러시아당이 51.72%의 투표율에 정당 명부 126석(49.82%), 지역구 198석으로 도합 324석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사전 여론조사에서 통합러시아당의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나와서 지금까지와 다른 선거결과가 나올지 주목을 받았다. 크림병합의 효과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약화된 반면, 장기간의 경기침체, 2018년 은퇴연령을 5년씩 미루는 연금 개정(이 사안은 푸틴의 지지율을 60%대 초반까지 끌어내릴 정도로 파장이 컸다)에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결과는 또다시 통합러시아당의 압승으로나왔다. 2020년 개헌 국민투표 이후 전자투표, 원격투표가 도입되었는데, 사전 여론 조사와 실제 결과 사이의 큰 차이 때문에 조작 논란도 불거졌다.16

조작 여부를 떠나, 이번 총선에서도 야권 세력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이 강화되었다. ① '외국대리인' 규정이 강화되어, 외국에서 자금지원을 받는 후보는 외국대리인 기능 수행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선거홍보물에 공지해야 했다. ② 중범죄뿐만 아니라 중간수준의 범죄를

¹⁵ 이준용, 제성훈. 「러시아의 '중대 국면'과 푸틴 체제의 대응: 2020년 러시아 헌법개정의 배경과 의미」, 《국제지역연구》 25권, 2021.

¹⁶ 예를 들어 모스크바의 한 선거구에서는 현장투표 결과 야권후보가 승리했는데, 전자투표 결과가 상당히 지연되어 발표되었고, 그에 따라 당선자가 뒤집히는 일이 있었다. 일부 러시아 통계학자들은 자체 분석 데이터에 기초해 광범위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세호, 「2021년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 선거 평가: 민심의 왜곡과 여당의 과대대표」, 《슬라브학보》 36권, 2021.)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피선거권이 제한되었다. 여기에는 '테러 정당화', '집회개최 절차 반복 위반'도 포함되었다. ③ '극단주의'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도 피선거권이 제한되었다. 나발니와 관련된 단체들, 즉 반부패재단, 시민권리보호재단, 나발니 본부도 극단주의 단체로지목되었다. 또한, 17개 언론단체와 기자를 외국대리인으로 규정하여활동에 제약을 가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021년 총선은 러시아 역대 선거 중 가장 '억압적' 선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푸틴 체제가 지속될 수 있을까

통합러시아당은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던 2011년 총선 전후로 크게 흔들렸지만, 2016년, 2021년 선거에서 다시 단독 개헌선을 돌파함으로써 의회 내 독주체제를 다졌다. 푸틴 역시 2012년, 총리를 마치고 다시 대선에 출마할 때 상당한 저항에 직면했으나, 2018년 대선에서도 여유롭게 승리를 거두고 2020년 장기집권을 향한 개헌에도 성공했다. 푸틴과 집권당은 선거마다 승승장구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푸틴 체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스웨덴 경제학자 오슬룬드는 푸틴이 네 가지 부류의 권력서클로 구성된 철의 비밀정원을 구성했다고 정리한다. 첫 번째는 수직적 국가권력이다. 두 번째는 대형 국유기업, 세 번째는 그의 측근과 그들이 소유한 기업이다. 네 번째는 앵글로-아메리카의 역외 은닉처로, 푸틴과 그의 측근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할 수 있다.

푸틴은 199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거시경제적 불안정이 곧 정치적 불안정을 낳는다는 사실을 깨우쳤고, 거시경제 안정을 중시했다. 그렇 지만 러시아 경제는 사적인 관계를 기초로 특혜가 오가는 연고(crony, 측근) 자본주의, 또는 부패한 정치지도자가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부를 누리는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 도둑정치)로 타락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러시아 경제는 성장잠재력을 소실하고 장기적인 정체 상태에 빠졌다. 오슬룬드는 이러한 푸틴의 체제가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굳어져서, 이제는 경제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그보다는 차라리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왜 그런가. 새로운 시스템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푸틴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지배집단을 해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건전한 선거 시스템을 통해서 정치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극도로 과대한 권한이 부여된 헌법을 대체하여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 견제와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둘째, 비밀경찰 FSB를 해체해야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국민을 감시하는 비밀경찰을 두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외정보를 다루는 정보기관이 존재할 뿐이다.) 셋째, 새로운 사법체계를 구성하고 인적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사법적 개혁이선행되어야 러시아의 연고 자본주의 또는 클렙토크라시를 깨는 진정한경제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

그렇지만, 푸틴 체제가 스스로 이런 선택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오히려 푸틴 체제가 장기화될수록 러시아의 자산은 경제력이 아니라 군사력을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불균형하게 배치될 것이다. 점점 더 고도화되는 러시아의 군사력은 자연스럽게도 푸틴 정권이 군사공격을 채택하도록 유혹하며, 그렇다면 푸틴 정권은 군사공격과 '승리하는 전쟁'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크림합병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를 장악하겠다

는 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수렁에 빠졌고, 2022년 전격적으로 단행한 우크라이나 전쟁도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크림합병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열한 바로 지금까지도 국내정 치 측면에서 보면 푸틴 정권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연고 자본주의, 클렙토크라시에 기초한 억압적이고 부패한 정권이 영원 히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고,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다. ●



[그림13] 흑해 겔렌지크 푸틴 별장

2020년 8월 독극물 테러를 당한 후 2021년 1월에 귀국하자마자 구금된 야권 지도자 나발니가 옥중 에서 대통령의 호화별장에 대해 폭로했다. 러시아 남부 흑해 연한 휴양지 겔렌지크에 위치한 7800 만㎡ 규모 별장의 구글맵과 내부사진, 건축비용 등을 담은 보고서와 동영상을 공개했다. 나발니는 "도시 국가 모나코의 39배 크기인 궁전"이라며, "하나의 거대한 도시, 왕국에 단 한 명의 차르가 산 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과 측근들은 나라를 파산 시킬 때까지 축재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러시아 는 석유, 가스, 금속, 비료, 목재를 판매하지만 푸틴 대통령 무리들이 그 돈을 다 써서 국민들의 소 득은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페스코프 대통령 대변인은 "겔렌지크 별장은 푸틴 대통령 소 유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